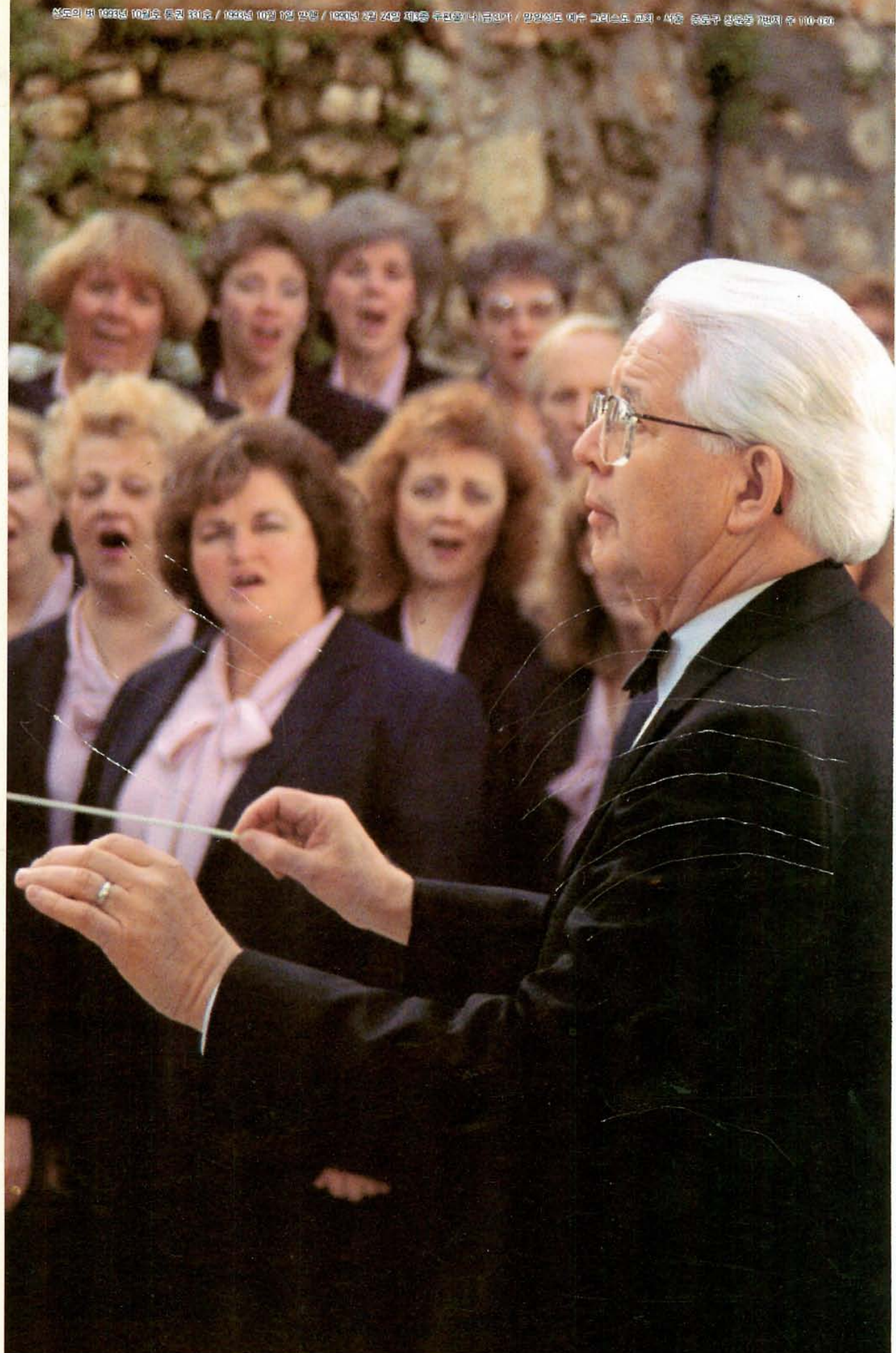


1993년 10월호 특권 181호
성도의 비
181호
1993년 10월 1일 발행
1993년 8월 24일 제18호 주필은 나(남원자)
만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서울 중동구 상원동 7번지 우 110-020





표지 설명 :

서로 다른 음성이 상충되고
 있는 땅 이스라엘에서, 태버나클 합창단의
 음악은 평화의 성가로 울려 퍼지는 하나의
 음성과도 같았다. 음악 지휘자인 제럴드
 디 오틀리가 동산 무덤 앞에서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다. "한 음성", 10쪽 참조.
 사진 촬영 : 데이비드 곤트 및 스콧 크누르스

어린이란 표지 :

콜럼버스 기념일, 앤 마리 오번 그림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3
한 음성 라린 간트	10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에서의 교회	22
데이비드 오 맥케이 : 한 영혼의 가치 레온 알 하트슨	26
계시의 집	34
쓰레기 속에서 찾은 책 크리스티나 안토니오	42

청 소 년 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면? 피에르 앙시앙	8
기적을 바람 타라 피어슨	33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십시오 조지 아이 케넌	46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재능은 나누기 위한 것임	25
교회 및 지역 소식	65

어 린 이 란

물몬경 이야기 : 라모나이의 부친을 가르치는 아론	50
친구가 친구에게 : 매리온 디 행스 장로	52
노래 : 이 몸은 주가 주신 성전 도널 헨터와 다윈 윌포드	54
편 고르기 마크 쉐퍼	55
함께 나누는 시간 : 이 몸은 주가 주신 성전 주디 에드워즈	58
제인의 꽃들 데브라 흡킨스	60
심심풀이	64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애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원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페커, 마빈 제이 애쉬튼, 알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리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쿠트
고문: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윌즈

통 권 : 제331호, 제30권, 제10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3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삼
편집인 : 한 상 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주) 이 세 용
© 1993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1. 번역 승인-10/91
October 1993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3990 320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ies.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매우 고무적인 잡지

저는 말일성도는 아니지만, 매달 탐볼리(영어판)를 애독합니다. 탐볼리에서 저는 매우 고무적인 기사들을 읽으며, 때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저에게 이 잡지를 선물한 교회 회원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달 탐볼리를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그네스 시 기사디오
일로일로 칼리노그
필리핀

선교사 도구

저는 현재 조지아 주 아틀란타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아호나를 통해 총관리 역원의 권고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 회원들과 접촉합니다.

최근에 저희는 리아호나를 통해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된 가족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미장원에 리아호나를 한 권 갖다 놓았는데, 한 손님이 그 중 한 기사를 읽고 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선교사를 만나고 교회에 참석하도록 초대를 받았으며, 결국 침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매님의 모범을 따라 비회원들의 눈에 떨 수 있는 장소에 교회 잡지를 갖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 사업을 하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알프레도 구티에레스 장로
조지아 주 애틀랜타 선교부

위안을 줍니다

저에게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 같습니다. 리아호나에 실

린 기사와 애독자 편지 및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위안을 얻습니다. 저는 최근에 개종한 회원으로서-1991년에 침례받았음-경전을 이해하는 데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바톨로메 에이 페레스 브리토
스페인 라스 팔마스 선교부
갈다르 지부(카나리 군도)

인도자

레프와르(프랑스어 판)는 저의 인도자입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거나 또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잡지에서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가끔 저는 만일 교회 회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기도하고 경전을 상고하며 교회 잡지를 읽으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감독님들이 매주 것처럼 과중한 교회 업무에 시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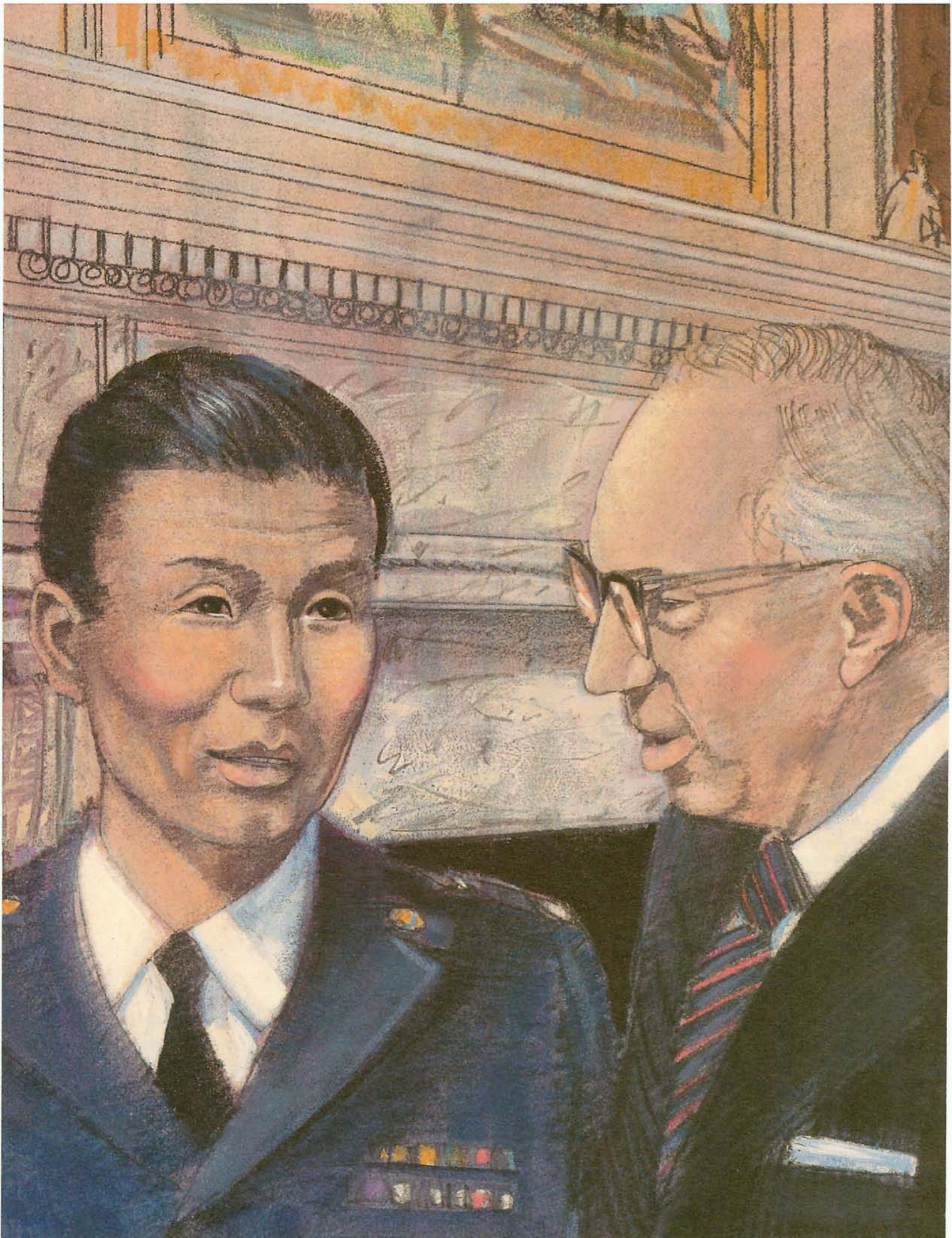
예를 들면, 저는 대관장단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총관리 역원과 접견을 하고 그분들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성도들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국제적인 가족으로 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 우리가 공과를 가르칠 때나 말씀을 할 때나 또는 가정의 밤을 할 때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이 잡지에 나오는 기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테파니 피에테
프랑스 낭시 스테이크
톨 지부

편집자 주

충실한 애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 및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보내실 때, 성명과 주소 및 소속 워드와 스테이크(지부와 지방부) 명칭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저는 세계 곳곳에서 훌륭한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왔습니다. 그 중 몇몇 분들로부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감명을 받았는데, 오래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멀리 외국에서 선진 기술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온 한 훌륭한 젊은 해군 장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미 해군에 있는 미군 동료 중 몇몇 사람의 행동에 마음이 끌려,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관해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흥미를 갖고 들었습니다. 미군 동료들은 그에게 세상의 구세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야기 및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또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와 현대의 예언자에 대해서도 들려 주었고, 주님의 복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 이처럼 큰 희생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물에 촉촉히 젖은 검은 농동자를 반짝이며 잘생긴 갈색 얼굴을 들고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젊은이를 소개받아 만난 때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일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 나라의 국민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형제님이 기독교인, 특히 몰몬 교인이 되어 귀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에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집안에서는 실망을 하겠죠. 아마 저를 쫓아내고, 저를 죽은 자식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장래와 직장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여건이 제게 불리하게 돌아갈지 모르겠군요.”

저는 “복음을 위해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물에 촉촉히 젖은 검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잘생긴 갈색 얼굴을 들고 “그것은 참되니까요, 그렇잖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같은 질문을 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됩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그 젊은이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하고 반문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참됩니다. 그렇잖습니까?”

통계를 보면 교회의 성장이 매우 인상적이고도 만족스럽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 몇 년 전 전국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는 일부 널리 알려진 큰 교회의 회원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또한 성장 속도가 점차로 빨라지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회원이 줄어드는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들 교회는 지나치게 관대해져서 누구라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는 회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신앙을 갖거나 헌신하도록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는 시간과 노력과 재산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종교 단체는 빠른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에서 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교회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부를 둔 몰몬 교회, 즉 말일성도로서, 연 평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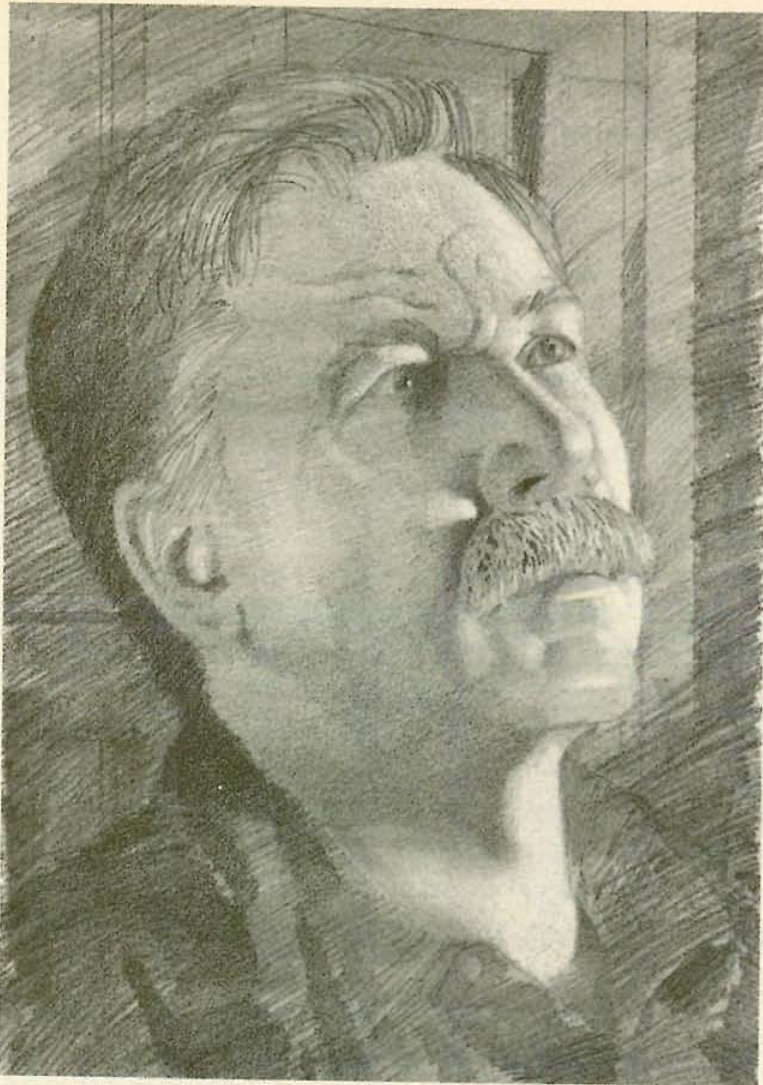
퍼센트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빠른 성장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논평이며,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 볼 문제입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한 가지는 헌신과 희생과 규율을 요구하는 종교는 그 회원들이 충실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옛날에도 그러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니고 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예외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에 있어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구세주께서 주신 다른 가르침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 그 뜻을 애매 모호하게 말하거나 우회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문은 좁고 길은 험작”(마태복음 7:14)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영원한 결과를 다루는 조직체는 반드시 어떤 지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지침을 반드시 고수해야 합니다. 조직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일정한 규율, 특히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 조직체는 구성원들로부터 오랜 기간 충실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편하고 즐거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처럼 많은 것이 요구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인품과 의지력과 고귀한 성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대하기만 해서는 결코 훌륭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실성과 충실함과 의지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해서 자기 수양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적 투쟁을 통해 발전되는 힘을 가진 덕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 힘이 없는 자기 수양은 체력 단련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규율을 위한 규율은 억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러한 규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두려움으로 강요하는 것인데,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없습니다.



아내가 침례를 받고 싶어하는 것에 울컥 화가 치밀어 짐을 뺀 나와 거리를 걷는 동안, 왠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그가 드리는 질문에 답해 달라고 간청했다.

반면에 개인의 확신에서 오는 긍정적인 규율은 인격을 쌓게 해주고 이끌어 올려 주며 강화시켜 줍니다.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진리에 대한 크고 강한 확신으로 동기를 부여받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자신은 영원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며, 봉사하는 데서 기쁨을 얻고 위대한 대업을 위해 노력하는 데서 만족이 온다는 것을 알아 스스로를 규율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회원들에게 요구하는 것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 사업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업이요 의로운 봉사를 통해 행복과 화평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회원들이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힘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수천 개의 예배당이

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리나 신학 연구원 대학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위한 시설물이며 바람직한 수단으로써 진정한 힘을 보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교회의 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으며, 이 사업이 참되다는 사실에 대한 회원 개개인의 간증과 확신에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와 간증을 갖고 있는 회원에게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보다는 성취해야 할 목표가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 : 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헌신적인 회원에게는 교회에서 주어진 책임이라는 멍에와 지도자의 임무라는 짐이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저는 개종한 지 얼마 안되는 어느 회원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술자였는데, 어느 날 선교사들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아내가 그들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들었지만, 그는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아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는 울컥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고나 저러는 걸까? 그렇게 되면 시간을 빼앗겨야 하고 심일조도 내야 하며 친구도 잃게 되고 또 담배도 끊어야 하는데. 그는 급히 옷을 걸쳐 입고는 문을 쾅 닫고서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면서 아내와 선교사들과 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도록 한 자신에게 마구 욕설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몸이 피로해지자 화가 가라앉으며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걸어가는 채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의 질문에 답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느낌으로 “그것은 참되다.”라는 말씀이 마치 누군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 왔습니다.

“그것은 참되다. 그것은 참되다.”하고 그는 계속 혼자

되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온해졌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를 것처럼 화나게 했던 규제와 요구 사항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회중에게 그의 가정에 찾아온 기쁨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십일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에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수입의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봉사를 위해 바치는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일 주일에 몇 시간만 들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책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책임을 통해 발전하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한 후, 지성과 세상적인 교육으로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에 익숙해 있던 이 기술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생애에 일어난 기적에 관해 간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있고 잘 훈련된 사람들과 사업계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빈틈없는 사람 등 세상 일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고, 복음이 다시 지상에 회복되어 그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는 간증의 불길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예수님은 또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6~17)

바로 여기에 누구든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이 사업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나 설교자나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간증을 전할 때 외에는 그들에게 항상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전에 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욥기 32:8)

어느 누구라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 마치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확실한 것같이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과 의미 및 이웃과 가족과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훈련시키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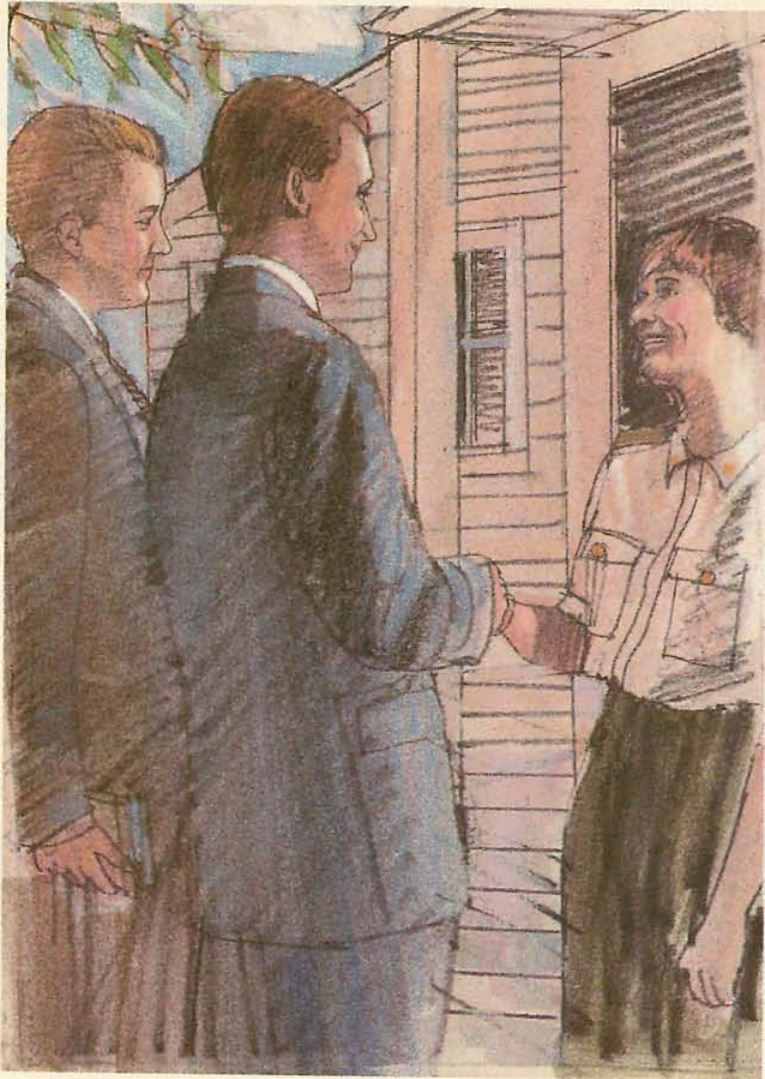
주님은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23)

이 평안은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빌립보서 4:7 참조)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고린도전서 2:11)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독일 베르호테스가덴에서 열린 한 물문 군인 대회에서 총명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어떤 자매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곳에서 그 자매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녀는 군의관으로서 계급은 소령이었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크게 인정받던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1969년 9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있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 보니 양복을 입고 흰 셔츠에 넥타이를 단정히 맨 두 젊은이가 서 있는데, 머리도 잘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인상이 하도 좋아서 저는 ‘무엇을 판매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 한 젊은이가 ‘우리는 판매원이 아니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의 신앙에 관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간증을 갖게 된 시초입니다. 지금 저는 말



그녀는 군의관으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특권과 영광에 대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제 마음에 가져다 준 기쁨과 평화는 바로 지상의 천국 그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저의 간증은 제 생애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써,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군 장교인 그 외국인 형제에게도 전해졌고, 제가 말씀을 인용해 드린 기술자와 방금 말씀을 전해 드린 여군의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도 수백만이 넘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성령의 증거를 간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옛날에 베드로에게 전해졌듯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 : 13, 15~18)

이 계시의 반석은 하나님의 일을 아는 지식의 원천이며, 영원한 진리를 간증하는 것은 성령의 증거하심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욱 훌륭하게 갈고 닦으며 그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지옥 문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것들에 대해 엄숙히 간증드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같은 지식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

1. 주님은 복음이 요구하는 것에 관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마태복음 7 : 14)고 말씀하셨다.
2.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즉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자신은 영원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이며 순종하는 데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복음이 요구하는 것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훈련시키게 된다.
3. 복음이 요구하는 자기 수련을 통해 우리는 인격과 정신력과 고귀한 성품을 키우고 화평을 얻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선

교부장님이 나에게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지시를 하셨을 때, 나는 부장님이 나에게 별을 주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프랑스가 모국인 나는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나의 새 동반자와 나는 수개월 동안 개종자의 침례가 없었던 도시인 아비뇽의 지역 지도자로 부름받았다.

동반자와 나는 아비뇽에서의 첫날 저녁을 아비뇽에 도착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동기와 힘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보냈다. 한 가지 결론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는 것이었지만, 짧은 선교 사업 기간을 생각해 볼 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성구를 떠올렸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 지역으로 왔다면 어찌겠는가? 이 도시 사람들이 우리가 개종시킬 수 없을 만큼 희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어찌겠는가? 단지 선교사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어찌겠는가? 주님이 우리의 신앙과 노력과 소망에 따라 보상을 준비하셨다면 어찌

겠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아비뇽에 대해 말해온 것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마음먹고, 주님께 다음달에 침례받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틀 후 우리는 하룬을 만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주님과 약속을 맺은 지 정확히 한 달 후에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하룬은 그의 아파트 윗층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에게 우리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래서 우리는 랑거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면?

피에르 앙시앙



가족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개종의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문과 랑거 가족이 살던 아파트 건물은 2층짜리였으며 한 층에 한 집씩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건물에 사는 사람 모두가 개종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100퍼센트 성공했던 것이다!

4개월 동안 선교 사업과 희생과 기적과 축복이 부어진 아비뇽의 작은 지부는 두 배로 커졌다. 우리 구역 선교

사들은 열 다섯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준비시키고 있었다. 그러자 모든 선교사들이 아비뇽에서 봉사하고 싶어 하였다. 그 도시의 명성이 회복되었으며, 아비뇽에 관한 모든 좋지 못한 생각들이 바뀌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나서 1년 후에 나는 스위스 성전에 참석했다가 랑거 부부와 그들의 세 자녀를 그곳에서 보고 놀라움과 큰 기쁨을 맛보았다. 나는 그들이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가족으로 인봉되는 것을 보았다. 에락 랑거 형제는 현재 대제사이며 또 아비뇽 지부의 지부장이다.

나는 주님이 내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아비뇽에 도착한 그 첫날 저녁에 동반자와 함께 온 힘을 다하여 일하겠다고 결심하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 만일 우리가 단지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





한 음 성

서로 상반되는 음성의 땅,
이스라엘에서 태버내클 합창단의
음악은 평화의 송가를 부르도록
돕는 한 음성이었다.



라린 간트

베 들레헴 근처 목자의 들 위로 햇살이 구름을 뚫고 새어 나온다. 현대의 베두인족이 바위 언덕으로 양떼를 끌고 갈 때 양의 울음 소리와 염소의 목에 달린 방울이 간간이 짚랑거리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메운다. 옛날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거의 비슷한 모습인 비탈진 들판이 양면으로 가파른 언덕이 치솟아 있는 계곡으로 이어져 있다. 석회암으로 층층이 이루어진 언덕이 간간이 얼굴을 내미는 햇빛을 받을 때마다 빛을 발한다. 구세주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천천히 움직이는 아침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언덕의 오른쪽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다.

목자의 들을 둘러싸고 있는 계곡과 언덕이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이 부르는 “주님은 내 목자니”의 선율로 서서히

.....
태버내클 합창단 (왼쪽)은 예수님이 팔복의 가르침을 전해 주셨던 산허리에서 노래 부를 때 “기뻐하고 즐거워 하라” (마태복음 5:12)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위쪽: 목자의 들에서



채워진다. “주님은 내 목자니 내 부족 없네 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그 찬송가의 마지막 가사인 “될 더 원하리”가
 대기에 힘차고 또렷하게 울려 퍼지면서 합창단은 노래를
 마친다. 놀라움게도 길게 끄는 메아리가 계곡 사이를 울리
 고 언덕에서 언덕으로 퍼지며 그 소리는 계속 이어진다.
 태버내클 합창단의 음악이 온 땅을 메운 가운데 대지는 그
 음악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992년 12월 26일부터 1993년 1월 6일까지 태버내클 합창
 단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와 하이파에서 가진 공연을 통해
 그 거룩한 땅을 음악으로 채웠다. 그리고 그 발표회가 이
 스라엘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생생하게 방송됨으로써 그
 메아리는 계속 이어졌다. 청중의 반응과 대중 매체의 논평
 을 통해 사람들이 그 음악을 계속 듣고 싶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음악으로 하나가 됨.

태버내클 합창단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동안 특기할 만
 한 사건은 1992년도 교회 음악 발표회에서 예루살렘 심포
 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베를리오즈의 미사곡 작품 5번을 부
 른 것이었다. 해마다 12월과 1월에 열리는 이 발표회에서
 는 중요한 기독교 송가나 오케스트라 작품을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태버내클 합창단이 순회 공연을 하는 동안 이들의 공연
 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가장 확실한 증
 거는 청중들의 반응이었다. 이스라엘은 많은 음악가를 배
 출한 나라지만, 반면에 이 나라의 세련되고 교양있는 청중
 들은 전통적으로 연주회가 끝나면 곧바로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러한 청중들이 베를리
 오즈의 미사곡이 끝난 후 5분 이상이나 앙코르를 외치며
 이 위대한 음악의 순수한 힘과 에너지에 일제히 박수 갈채
 로 응답하였다.

예루살렘 시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고 있는 테디 콜렉은
 태버내클 합창단의 공연이 “이해의 다리”를 놓았으며 “평
 화와 형제애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창단의 음악에 대한 청중들의 가장 극적인 반
 응은 라흐마니노프에서부터 미국의 흑인 영가까지 그들이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곡들을 섞어서 무반주로 부를 때 나
 타났다. 이 공연은 청중들이 모두 기립한 가운데 합창단이
 이스라엘 국가인 “하티크바”를 부르면서 시작되었다. 합창
 단이, 청중들이 특별히 감동적인 반응을 보인 “바빌론 강
 가”와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점속곡으로 부르고 나
 서 공연의 전반부가 끝나자 더 많은 청중들이 공연장으로
 몰려 들어왔다.

후반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청중들은 의자에서
 등을 떼고 몸을 앞으로 굽히기 시작하였다. 합창단이 “손
 뺍 치세요”라는 말과 함께 “소리를 지릅시다”를 부를 때 일
 부 청중들이 음악에 맞춰 손뺍을 치기 시작하였다. 가벼운
 미소가 환한 웃음으로 변하였다. 곡이 거듭될 때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다. 마지막 곡인 “신디”를 중략된 리듬으
 로 부를 때 청중들은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거나 다리를 치
 거나 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합창단이 손뺍을 치면
 서 “집에서 사이좋게 지내요, 귀여운 신디. 언젠가 그대와
 결혼할거야”를 부를 때 오르간 반주자와 타악기 연주자들
 이 말발굽 소리와 방울 소리 그리고 탬버린 소리를 곁들여
 주었다. 청중들은 박수 갈채를 보냈으며, 어떤 사람들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손뺍을 쳤다. 그러다 마침내 청
 중들은 모두 박자에 맞추어 손뺍을 쳤다.

그리고 앙코르가 시작되었다.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
 는 “황금의 예루살렘”이 콘서트 홀을 채우며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청중들은 숨을 죽였다. 이어서 남성 독창자가 히
 브리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마자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청중들이 이 노래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
 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음악에 도취되어 손으로 입을 막

태버내클 합창단과 테너, 로버트
브리알트와 예루살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데이비드 살론의 지휘
하에 예루살렘 (왼 왼쪽)과 텔아비브
(오른쪽)에서 함께 베를리오즈의

미사곡을 발표하였다. 1837년에
프랑스의 작곡가, 헥토르 베를리
오즈에 의해 쓰여진 그 미사곡은 죽음의
순간과 심판 및 구속과 부활의 날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 정신없이 듣고 있는 여인도 있었으며, 젊잖은 모습의 어느 신사는 안경을 벗고 남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노래가 계속되는 동안 많은 청중들이 합창단을 따라 소리없이 입만 병긋하며 따라 불렀으며 어떤 사람들은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 노래가 끝나고 합창단 지휘자인 제럴드 오틀리 형제가 텔아비브에서도 청중 가운데 있었고 예루살렘의 발표회에도 참석한 “황금의 예루살렘” 작곡가인 나오미 쉘마를 가리켰다. 그녀가 일어나자 청중들은 우리와 같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1967년에 있었던 육일 전쟁 동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노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보내는 것이었다. 이 노래는 황금으로 만든 예루살렘성의 축소형 모델을 아내에게 주었던 한 아랍 족장의 전설을 근거로 작곡되어 1967년에 열렸던 어느 콘테스트에서 우승의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그 전쟁 동안 끊임없이 방송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노래는 이스라엘 병사들과 시민들이 이전에 한번 분할된 적이 있었던 그 도시의 폐쇄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동안 이들을 서로 묶어 주는 구심점이 되었다.

청중들은 다시 일제히 손뼉을 치기 시작하였으며 합창단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찬송가가 끝날 때 짙은 콘서트 홀 안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으며, 청중들은 모두 기립해서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 때문에 노래의 뒷부분을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합창단이 즐겨 하는 마지막 안코르 곡인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을 부를 때 청중들은 모두 일어선 채로 있었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예루살렘 센터의 주인인 로버트 쿤딩은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발행한 한 인터뷰 기사에서 “음악은 모든 장벽을 초월하죠. 노래는 이스라엘 땅에서 겪는 커다란 경험의 기초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태버내클 합창단이 공연을 할 때마다 그 진실성이 입증

되었다. 공연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순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개별적인 존재로 있을 때보다 더 높은 어떤 상태로 변형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합창단의 음악은 각 청중의 감성과 기억과 혼합되어 그들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은 함께 평화를 느끼며 세계 공통어인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발표회 뒷이야기

박수 갈채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청중들은 못내 아쉬워하며 서서히 자리를 떠났다. 발코니에서 아래층으로 내려 오거나 1층에서 로비로 나오는 청중들 가운데는 “기쁨에 넘쳐” 조용히 홀을 빠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무리를 지어 함께 모여서 마치 모두가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서로 흥분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지요.”

• “공기를 호흡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 “천국에서 두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키부츠 사람 모두가 버스를 전세내어 왔어요. 태버내클 합창단의 노래를 듣지 않고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죠.”

•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노래를 부르는군요.”

• “이 투쟁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합창과 음악으로 우리에게 한 순간의 평화를 안겨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 “아름답고 훌륭하고 부드러웠어요.”

•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노래했어요.”



• “이곳으로 올 때는 마음이 메말라 감정이 무디었는데, 지금은 강렬한 느낌을 갖고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 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떤 것을 되흔들어 놓았어요.”

• “전 오늘밤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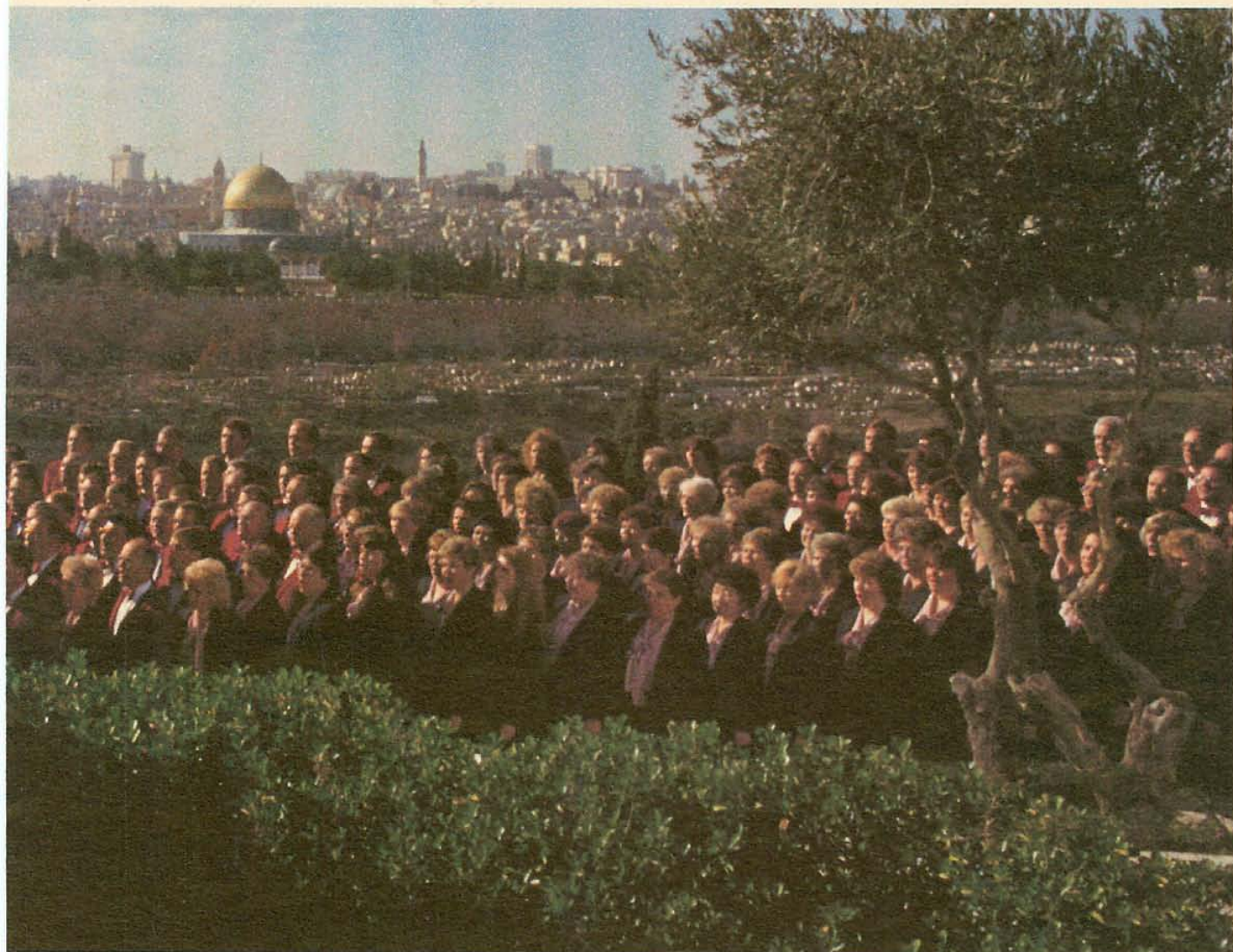
영적인 여행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와 아내인 루스는 588명의 합창 단원과 그 배우자 및 이스라엘의 합창단 임원들과 함께 여행하였다. 현재 북 유럽 지역의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아내인 패트는 예루살렘에서 합창단과 합류하였다. 그들이 함께 하며 지도력을 보여 주어 합창단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동안 영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합창 단원의 마음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 또한 이 종교적인 여행담에 중요한 부분이다. 합창단 단장인 웬델 엠 스

무트 형제는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심오한 종교적인 의미를 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적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많은 합창 단원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것”이 그 거룩한 땅을 순례하는 것 이상을 뜻한다는, 즉 그것은 영적인 여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합창단과 또한 그들과 동행한 사람들의 영적인 여행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직후인 12월 27일에 브리감 영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의 성찬식에 참석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밤에 센터의 강당에 앉아서 삼면의 유리벽을 통해 예루살렘을 내다보았다. 그들 앞에는 왼편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오른편의 겐셋마네 지역까지 예수님이 걸으셨던 많은 장소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모임은 개회 기도와 성찬을 취하는 것에서 예루살렘 센터의 책임자



인 트루먼 매드슨과 교직원인 앤 매드슨, 그리고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말씀까지, 모든 면에서 강한 영으로 가득하였다.

합창 단원인 스티븐 바드즐리는 이렇게 말했다. “전 성찬 준비를 도왔습니다. 빵을 축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제 영혼 가운데서 솟구쳤던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곳 근처에서 아주 오래 전에 구세주께서 하신 것처럼 성찬을 축복했던 그 귀한 특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복 기도를 할 때 제 입에서 천천히 흘러나오는 낱말 하나 하나가 감미로웠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빵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저는 특별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성찬을 취한 후 매드슨 형제가 말씀을 하였다. 그는 합창단의 방문에 대해 “우리는 합창단이 이스라엘에 오기를 꿈꾸고 기대해 왔습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

합창단은 감람산 위, 도미누스 플라워트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렀다. 바로 그 근처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전에 그 성을 내려다 보며 우셨다.

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 오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홀런드 장로는 올슨 하이드가 1841년 10월 24일에 감람산에 올라서 유대인의 귀환을 위해 이 땅을 헌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는 “여러분은 이 경륜의 시대에 대해 추억 거리와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간증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영적으로 고조된 또 다른 경험은 하이파에 도착한 이틀 후, 사도가 베풀어 준 축복의 형태로 왔다. 그 여행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육체적인 요구 사항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한 합창 단원의 다음 이야기는 다른 모든 합창 단원들의 육체적인 어려움을 대표하는 것이다.



“삼 개월 간의 힘든 연습과 여러 번의 공연, 그리고 열 두 번의 방송 녹화 및 여행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가족의 크리스마스 활동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등, 제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12월 26일에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도저히 합창단 여행에 참여하지 못할 지경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한 후 첫 이틀 동안에 합창단은 베를리오즈 미사곡(거의 한 시간 반 길이)을 세 번 연습한 것을 포함하여 네 번의 주요 연습회를 갖고 무반주 공연을 위한 연습을 한 번 갖고 나서 공연에 들어 갔다.

하이파에서 합창단이 첫 공연을 하기 전에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합창 단원들의 몸이 새로워져서 공연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합창단의 일원인 토니 데이비스는 “제 몸에 실제로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있는 우리는 모두 힘이 솟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한 후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영적인 힘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까지 주신 것에 감사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갈릴리 근처의 디베리아에서 가진 성찬식 동안 파우스트 장로는 합창단이 수행하는 일의 신성함에 대해 간증을 전하고 그들에게 두번째로 사도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다. 파우스트 장로는 축복을 통해 힐라만서 10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이토록 성실히 행하였 으며, 보라, 내가 너를 영원토록 축복하며, 언행과 신앙...에 있어 네게 권세를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강조하였다.

연습과 공연

합창 단원들이 연습과 공연 및 금년에 방영될 텔레비전

특별 프로그램을 위한 녹화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경험은 계속되었다.

합창단은 12월 28일 예루살렘 센터에서 예루살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데이비드 샬룬과 함께 처음으로 연습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당시 합창단은 강당에서 커튼이 드리워진 유리벽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으며 샬룬씨는 그 벽을 등지고 있었다. 연습 도중에 누군가가 그 커튼을 열어 젖혀서 합창단은 그 오래된 도시의 대낮 경관을 보게 되었다. 샬룬씨는 뒤를 돌아보더니 큰 소리로 탄성을 내뿜 으며 두 손으로 턱을 받치고 합창단과 함께 그 놀라운 경관에 넋을 잃고서 한동안 움직일 줄 몰랐다. 합창단과 지휘자 모두에게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공연을 하는 동안 베를리오즈의 미사곡과 무반주 합창의 감동이 합창단의 마음을 커다란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나 적어도 합창단의 일원인 마이클 맥콤버에게는 이스라엘에서 노래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

그는 “저는 유대인과 회교도와 기독교도와 또 저의 증조 부의 형이 되는 존 알렉산더 클라크 장로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라고 말한다. 1894년에 터키 선교부로 부름받 았던 존 클라크 장로는 1895년에 현재 이스라엘의 하이파 에서 천연두로 사망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헛되이 죽어 문 힌 것처럼 보이는 두 선교사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이 무덤들은 이스라엘에 교회가 이미 들어 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며 예루살렘 센터를 짓기 위한 승인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이클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시편 137편에 나오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성구에 근거한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습 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죠. 저의 조상인 존 할아 버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상스럽게도 묘한 느낌이 들었습 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

왼쪽: 합창단의 성공적인 공연은 여행하면서까지도 여러 시간 동안 연습한 결과였다. 합창단의 음악 책임자 겸 지휘자인 제럴드 디 오틀리(서있는 사람) 형제가 태버네클의 오르간 연구자인 리차드 엘 엘리엇와 함께 선택한 곡을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 로이드 디 누알이 진행하는 합창단의 주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음악과 진리의 말씀”이 BYU 예루살렘 센터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북미와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녹화되었다.

교'라고 시편의 저자는 사로잡힌 이스라엘에 대해 말했지만, 저는 이곳에서 저의 조상에게 주님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전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미사곡을 부르기 위해 왔으며, 결코 예루살렘도 존 알렉산더 클라크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빌론 강가”를 부르는 것은 역시 다른 많은 합창 단원들에게도 새로운 영적인 의미를 안겨 주었다. 한 단원은 “하이파에서 영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울었기 때문에 ‘바빌론 강가’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경험이었죠.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부를 때 저는 그 내용이 유대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하나가 됨을 느꼈어요.”라고 말했다.

거룩한 유적지에서의 녹화

많은 단원과 지도자들은 텔레비전 특별 프로그램을 녹화하기 위해 유적지에 모였을 때 영을 가장 강하게 느꼈다. 녹화 기간 동안 그 유적지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창단은 함께 일하는 동안에도 얼마간의 개인적인 자유를 누렸다.

켄 윌크스는 일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오늘 합창단은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고 우셨던 곳에서 멀지 않은 도미누스 플라워트의 장엄한 언덕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렀다. 엘라베마의 작은 시골 교회 옆에 있는 공동 묘지에 묻혀 있는 조상들에 관해 생각할 때 눈물이 나왔다. 나는 가족들이 하나가 되도록 성전 축복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그리스도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합창단은 팔복을 가르쳐 주신 산에서 녹화를 하기 위해 디베리아에서 두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 반쯤 건너서 그리스도가 물을 잠잠케 하신 그날

밤처럼 갑작스런 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배를 멈추어 기도를 드리고 합창단과 그 밖에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주여, 큰 폭풍우 일고”를 불렀다.

한 단원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멈추었을 때 강한 영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영을 강하게 느껴 본 적이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가 생겨서 합창단이 산상 수훈 산에 도착한 때는 해가 지기까지 불과 한 시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때쯤에는 태양이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기 시작했으므로 하늘이 약간 어두웠다. 참여한 여러 사람들은 촬영반이 합창단을 촬영하기 시작할 때마다 태양이 길고 좁다란 구름 뒤에서 나와 따뜻한 햇살을 충분히 보내 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녹화할 때마다 날씨를 조정해 주셨던 주님의 손길에 대해 또 하나의 간증이 더해졌다. 실제로 합창단이 방문했던 기간은 거의 매일같이 날씨가 고 청명했다. 딱 한번 비가 왔는데 그것은 밤 사이에 내렸다.

목자의 들에서 합창단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곳이라 울타리를 쳐 놓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지역을 돌보고 있는 카톨릭 사제 중 한 명인 피터 바스코 신부가 촬영하는 동안 합창단을 만나 그들에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허락합니다.”라고 말했다.

카터 넵은 “목자의 들에 우리 노래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저는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그 경험과 메아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강렬한 영적인 느낌은 동산 무덤에서 일어났다.

단원인 페이 메이슨은 “합창단은 촬영을 위해 동산 무덤 앞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빈 무덤 바로 앞쪽에 있



동산 무덤(왼쪽)에서 합창단은 “그 놀라운 십자가 생각할 때”를 불렀다.
오른쪽: 촬영 기사가 노래하는 장면을 녹화하고 있다.



있는데, 음악은 미리 녹화해 놓았지만 제럴드 오틀리 형제님이 마지막 연습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 생각할 때’를 부르면서 저는 주님의 영을 아주 가깝게 느꼈습니다. 한 순간 손을 내밀면 주님이 제 손을 잡아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라고 말했다.

합창단의 톰 포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구세주에 대해 더 큰 이해력과 사랑을 얻었습니다. 구세주는 살아 계십니다! 찬송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저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었으며, 그곳에서 예수님의 자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빈 무덤 앞에 마주 섰을 때 우리 모두는 [“그 놀라운 십자가 생각할 때”]의 마지막 구절인 ‘놀랍고 거룩한 사랑으로 내 영혼과 내 인생, 내 모두를 원하시네’라는 내용에 압도된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계속 이렇게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움으로써 저는 참으로 다르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악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행에서 태버내클 합창단 순회 공연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BYU 예루살렘 센터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러는 것처럼 선교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했다. 파우스트 장로는 이같은 서명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루살렘 센터를 위한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교섭을 시작했을 때 전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함께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을 성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은데,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엄숙한 책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콜렉 시장과 함께 이것을 토의할 때 그는 우리에게 나치의 유대인 학살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제 한 명의 유대인도 잃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합창단과 그 배우자 및 임원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방문

할 때마다 교회에 관해 얘기할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다. 많은 합창 단원들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태버내클 합창단이 부른 노래 중 사전에 이스라엘 당국의 승인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당한 대중 음악 테이프를 주었다. 한 단원은 “우리는 전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음악으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단원은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 주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단원의 남편이 보여 준 친절한 행동이 영구적인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어느 날 네 명의 단원과 그 가운데 두 명의 배우자가 함께 샤갈이 유리창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그린 유명한 작품을 보기 위해 카데쉬에서 택시를 타고 하다사-히브리 대학 의료 센터로 갔다. 집객을 맡은 요헤베드는 “온 예루살렘 사람이 여러분의 합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마지막 공연을 들으러 오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머뭇거리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될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그곳을 나온 후 그들은 그 “여러 가지 일”은 그녀가 표를 살 돈이 없다는 뜻을 깨달았다. 그들은 다시 되돌아가서 그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그녀에게 자신의 표를 주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였으며, 그날 밤 공연을 들으면서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공연이 끝난 후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하나씩 끌어 안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친절에 보답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름조차 알지 못해서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의 이름으로 오늘 하다사 병원에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그 나무는 계속 자랄테니까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여러분의 나무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안겨 주셨습니다.”

케이 린 웨이크필드는 동산 무덤에서 일하던 한 여성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웨이크필드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서둘러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맑은 소프라

노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저는 마치 하늘에서 들리는 듯한 그 소리에 마음이 끌려서 같이 가고 있던 동료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그 노래가 들려 오는 곳을 찾아가 보니 그 동산에 난 오솔길을 쓸고 있는 키가 작은 한 영국인 부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네자 그 부인은 동산 무덤으로 나 있는 길을 매일 쓸면서, 어떤 때는 시작할 때부터 길을 다 쓸 때까지 노래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부인에게 태버내클 합창단이 그날 동산 무덤에서 노래부를 것이라고 알려 주자, 그녀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로 ‘네, 알아요. 오늘 여기에서 그들의 노래를 듣는 것이 큰 특권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부인을 한번 끌어 안고는 다시 동료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너무 열중한 나머지 그 여행을 즐기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한 단원이 베들레헴에서 올리브 나무 가게를 들렀을 때, 그 가게 주인에게 태버내클 합창단의 테이프를 주자 그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당장 듣더니 몇 분 후 그 합창 단원의 뒤를 쫓아 거리로 달려 나오며 기쁨에 겨워 “당신 음악이 우리 가게에 흐르는 것을 좀 들어보세요!”라고 소리쳤다.

태버내클 합창단의 음악이 열흘이란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울려 퍼지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국민이 그 음악을 놓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각 가정에서 합창단 테이프를 들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재방송에 귀기울임으로써 마치 목자의 들에서 메아리가 울려 퍼진 것처럼 합창단의 음악은 전국의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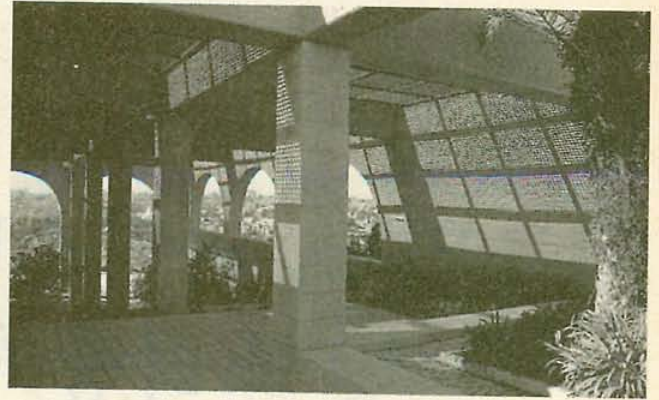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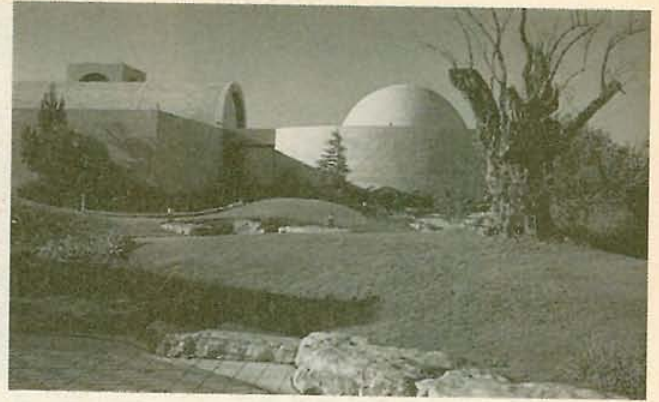
디베리아의 성찬식에서 파우스트 장로가 합창 단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행해 온 선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빛과 평화의 건물

중 동학 연구를 위한 브리감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의 입구 근처에 크고 거친 올리브 나무가 햇빛 속에서 서 있다. 그 나무의 검고 비틀어진 가지들은 센터의 번쩍이는 하얀 돌과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 나무는 바닥의 푸른 잔디와 비교해 볼 때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갈릴리 해에서 이곳으로 옮겨 온 800년 된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바람에 씻긴 그 몸체에서 싹이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수백년간 살 수 있는 뿌리를 가진 올리브 나무는 가장 오래 사는 식물 중의 하나이며 이 나무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구세주께서 가르친 진리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복음 속에서 성장하여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오래된 시가지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센터는 스코푸스 산의 최남단과 감람산의 북단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 서 있으며, 건평이 11,146평방 미터이고 부지는 1.8헥타르이다. 7층 건물에 높이가 30.5m 인 이 건물에는 교실과 도서관, 다목적실, 식당, 두 개의 강당과 175명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가 있다.

이 건물의 건축학적인 메시지는 빛과 평화이다. 그 건물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문자들은 분수가 있고 평화롭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외따로 떨어진 정원으로 먼저 들어간 뒤 빛과 따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채워진 높고 긴 회랑으로 옮겨 간다. 건물 표면은 대부분이 대리석과 티크재 및 예루살렘의 돌로 되어 있다. 방문자들은 330개의 좌석이 있는 위층의 강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당을 둘러싸고 있는 아치형 통로의 격자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 사이를 통과하게 된다. 강당은 네 벽 중 삼면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빛으로 가득하다. 예루살렘의 다른 어느 건물과는 달리 이 창으로 이루어진 강당 안에서는 고도 예



BYU 예루살렘 센터는 돌로 덮인 우아한 아치문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공통적인 디자인 양식을 본뜨고 있다. 길고 높은 회랑 (왼쪽 위)에는 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고 있다. 정원 입구 (오른쪽 위)에는 8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다.

루살렘의 경관이 한 눈에 보인다. 밤에 건너편 계곡에서 바라보면 층층으로 된 아치형 창에 불이 켜진 그 건물은 마치 언덕 위에 등불이 켜진 것처럼 보인다.

그 건물이 완공된 후 당시 브리감 영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예루살렘 시장인 테디 콜렉을 그 건물로 초대했다. 콜렉 시장은 45분 동안 그 건물을 둘러 보는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마침내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부지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부분을 차지하셨군요. 그리고 거기에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을 하셨습니다. 이 건물은 근년 들어 예루살렘에 지어진 건물 중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복수 문화 사회의 강력한 주창자인 콜렉 시장은 그 센터가 지어지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정치 경력에 위협을 받았다. 이스라엘에 태버내클 합창단을 초청했던 1992년 2월 16일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예루살렘 시장으로 재임한 25년 동안에 겪은 모든

어려움 중에서 BYU-스코프스 산 캠퍼스와 관련된 것이 아마 가장 어려웠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한 도시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관용적인 태도를 갖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쫓겨나 살았던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합법적인 교육 기관과 예배 장소를 지으려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학생들은 예루살렘 센터에서 중등학교를 공부할 수 있다. 이곳은 지식을 얻고 그들의 영적인 뿌리를 복음의 영원한 진실성과 그리스도의 생애에 깊이 내리기 위해 오는 학생들에게 언덕 위의 불빛이 되고 있으며, 또한 스코프스 산에 아치형으로 높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건축학적으로도 언덕 위의 등불로서, 그 아래에 놓인 예루살렘시에 평화를 속삭여 준다. □



존 케이 카멕 장로



몬트 제이 브리프 장로



윤대극 장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스리랑카에서의 교회

아시아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고, 미얀마(이전의 버마), 네팔, 파키스탄,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일성도 선교사들은 그 지역이 소인도 대륙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1850년대부터 이미 전도 활동을 했지만, 교회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이다.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알기 위해 본 잡지의 편집자는 아시아 지역 회장의 몬트 제이 브리프 장로와 그 보좌인 존 케이 카멕 장로 및 대 격운 장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질문 : 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답 : 이 지역의 주요한 발전은 금년 1월에 인도 방갈로르 선교부가 세워진 것입니다. 선교부장은 인도 출신의 굴차란 싱길 형제로서 브리감 영 대학교의 수학 교수로 재직

하던 형제님입니다.

인도에서 교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 선교부가 조직된 것은 8억의 인도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나라에서 우리들은 40년 전이나 50년 전에 남미에서 교회가 처했던 상황과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회원들은 그 수가 비교적 적지만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자발적입니다.

질문 : 이들 나라의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답 : 인도의 회원은 1,200명입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인도의 중남부에 있지만 그들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일곱 개의 단위 조직이 있으며, 회원 수는 각 단위 조직마다 대략 150명 정도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6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992년 3월 15일 다카 지부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현재 약 4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 : 아이작 피거슨

스리랑카의 콜롬보에도 지부가 하나 있으며, 회원 수는 112명입니다.

질문 : 그곳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대답 : 가난은 이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도전입니다. 또 종교 문화가 생활 양식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압력이 때때로 엄청난 장애가 됩니다.

질문 : 회원들은 이러한 도전과 마주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답 :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나 상황에 관계없이 똑같이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어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하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질문 : 이러한 발전의 실례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 : 인도에 에베니저 솔로몬이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지만 인도에서 봉사하던 많은 부부 선교사들 중 한 부부를 통해 오래 전에 교회에 관해 배우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아들도 함께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에베니저는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현재 결혼하여 싱가포르 선교부장의 보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니저의 형제인 사무엘은 방갈로르 지부의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천 팔백만 명이 넘는 네팔은 교회의 아시아 지역에 포함된다. 위쪽, 수도 카트만두에서 힌두 사원의 참배자들이 바그티 강에 몸을 씻고 있다.



사진 촬영 : 마빈 케이 가드너

스리랑카, 콜롬보의 쉐린 오파티는 고국에서 부름받은 첫번째 자매 선교사이다. 그녀는 1989년에서 1990년까지 필리핀에서 봉사하였다.

그 밖에도 예로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물몬경을 접하게 된 한 가족이 있는데, 그들은 그 책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얻고 최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파키스탄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란 교회 소책자를 읽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업이나 정부의 직책 때문에 북미나 유럽 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들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국외 사람들의 공헌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쌓아 온 경험으로 그들이 속한 곳이라면 어느 지부든지 그곳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최근의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주의적인 봉사를 베풀도록 부름받은 많은 부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월에 유타로부터 네 쌍의 부부들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여 주요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외에도 하노이 어린이 궁전의 교사와 임원 및 어린이들에게까지 영어를 가르칠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미국에서 전직 교육자였던 네 사람과 그 아내들이 몽고의 교육부와 5개의 몽고 대학교 및 그 산하 대학에 고문과 상담역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중요한 교육 위원회로부터 그 일원으로 일해 달라는 권유를 받았으며 영어와 사업 원리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들은 전문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 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열렬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여러 명의 구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 아시아의 이 지역에서 교회의 미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 영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포도원의 일꾼들은 비교적 소수이지만 훌륭하게 봉사해 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 한 교회 프로그램을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만을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복음 속에서 성장하도록 배울 때 프로그램 때문에 압도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 방갈로르의 한 성찬식에서 열 네 살 된 소년이 아주 훌륭한 성찬식 말씀을 하였습니다. 스무 살인 그의 형이 그 모임을 이끌었는데 다른 어느 곳의 교회 모임 못지 않게 잘 준비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교회가 작고 비교적 새로운 이런 지역들 중에서 우리는 미래의 강한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힘이 되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족 관계가 여전히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 교리와 원리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데 이것이 교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재능은 나누기 위한 것임

도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모든 여성은 영원한 계획 안에서 자신의 특수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개성과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았다.”(“상호부조회의 정신”, 성도의 빛, 1992년 5월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번째 재능을 잘 발전시킬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발휘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마태복음 25:15~21 참조)

일상 생활에서 재능을 키울 수 있음.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하는 일을 단지 힘든 것으로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남편과 자녀와 가족과 친구에 대한 충실한 봉사의 정신으로 행한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맛있는 음식 만들기, 공과 준비하기, 정원 가꾸기, 편지 쓰기, 가족 또는 친구를 다정하게 격려해 주는 일—이 모든 일들이 재능을 향상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재능을 축복해 주시므로써 우리의 재능을 더 키워 주십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인내심과 애정과 포용력 및 관대함을 보이는 것을 배웁니다.

엘레인 잭 회장은 자신의 할머니가 갖고 있던 재능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녀들의 옷을 모두 손수 만들었습니다. 자녀의 양말과 장갑을 실로 뜨고 소에게서 우유를 짜 직접 버터를 만들었으며 그것을 내다 팔았습니다. 또 닭과 오리나 칠

면조를 길렀고, 상호부조회의 보좌로서 밀을 모으는 일도 했습니다. “제게 요구되는 일이 할머니가 하셨던 모든 일보다 덜 어려울까요? 저는 로우 할머니가 하셨던 것과 똑같은 노동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할머니처럼 부지런함과 동정심과 검소함을 지녀야 하며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겨울을 위해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유산입니다.”

•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키워 왔는가?

우리는 교회의 부름을 통해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음.

누구든지 보조 조직의 지도자나 교사로서의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공과를 준비해 오거나 또는 말씀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활동을 지휘한다면 재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에 응함으로써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연주하며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덕 비로우 그림



니다.

텍사스, 하이랜드 빌리지의 한 와드에서 최근에 가사 지도자로 부름받은 마고 메릴은 자선 봉사 활동으로써, 기증받은 천 조각을 함께 이어 만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비 조각을 잇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각들은 다림질해서 잘라 내고 색깔을 분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그 천 조각들을 가사 모임에 가져가서 다른 자매들의 도움을 받아 색깔을 맞춘 후 뒷면을 꿰매고 함께 이어 가장자리도 둘러 박았습니다. 그 자매들은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나누었으며 그 결과는 그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재능을 발전시키고 부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감과 새로운 종류의 봉사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브리히다 아코스타 데 페레스는 멕시코 산 펠리프의 한 조그만 지부에서 상호부조회의 보좌로 봉사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자매들은 스페인어를 사용하였고 또 어떤 자매들은 원주민어인 노우아트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브리히다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매주 공과를 통역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은사, 즉 두 문화에 다리를 놓고 자매들 사이에 사랑을 북돋우는 은사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개별적인 은사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재능을 키움으로써 우리는 일상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새로운 재능을 발전시키고 있는가? □

데이비드 오 맥케이

한 영혼의 가치

레온 알 하트슨



교회 제9대 대관장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탁월함과 성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분이셨으며, 또한 자신이 지닌 고귀한 재능에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준 복음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셨던 분이셨다.

맥케이 대관장은 현대 교회사에서 중요한 시기에 살았다. 데이비드는 브리감 영이 교회 대관장이었던 1873년 9월 8일 부모님의 농장이 있던 유타주 헨츠빌에서 태어났다. 96세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맥케이 대관장은 인간이 달에 발을 디뎠던 20세기의 후반기에 이 교회를 인도하셨다.

맥케이 대관장이 교회를 인도하는 동안 교회 회원수가 백십만 명에서 이백 팔십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스테이크의 수가 거의 세 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선교부의 수가 두 배 이상, 선교사의 수가 여섯 배 늘었으며 스위스와 뉴질랜드, 영국과 캘리포니아에서 성전이 헌납되었고, 복음이 과거보다 더욱 많은 나라로 퍼져 나

갔다.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맥케이 대관장은 헨츠빌에서 보낸 유년 시절부터 대관장으로서의 일과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 나갔으며, 부모님의 모범을 통해 주님과 그분의 사업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 누나 두 명이 죽었으며 얼마 후에는 아버지가 선교사로 부름받아 이 년 동안 스코틀랜드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맥케이 자매는 열흘 후에 여자 아기를 낳았으며, 또 누군가가 농장을 운영하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참으로 희생과 시험의 기간들이었다. 데이비드는 이때 신앙과 확고한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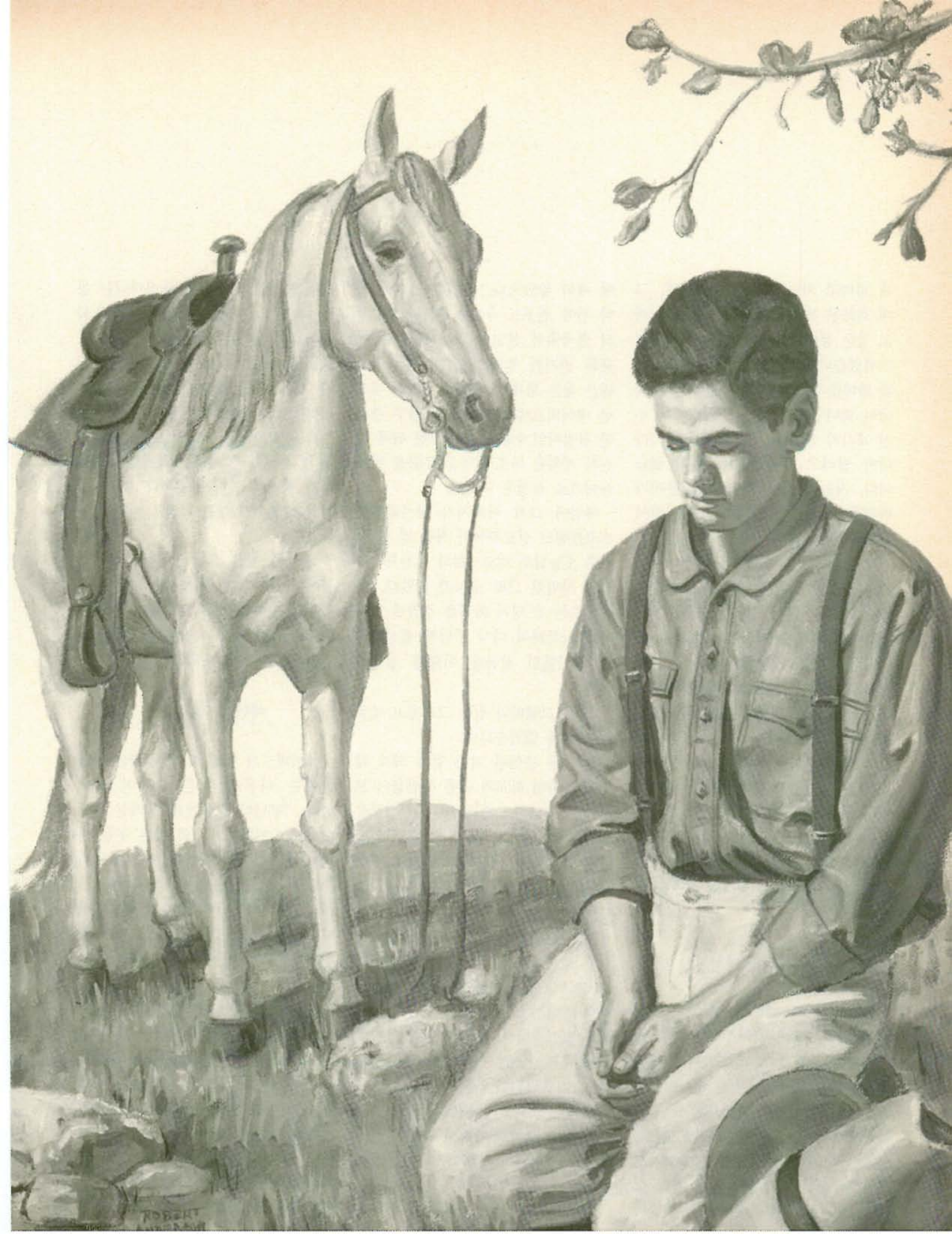
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길을 떠나기 위해 말에 오른 그의 아버지는 어린 데이비드를 들어 팔에 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며 “데이비드야, 엄마와 가족들을 잘 보살피거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로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각별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증거를 찾아

데이비드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나, 십대의 이 시골 소년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해 자기 스스로 증거를 갖고 싶었다.

“소년 시절 하루는 길을 잃은 소떼를 찾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가 말에게 휴식을 취하

청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에 대한 시현을 보고 싶다는 자신의 기도에 대해 직접 응답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교훈을 배웠다.



ROBERT
McKENNA

게 하려고 가던 길을 멈추었는데, 그때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다시금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말에서 내려 저는 고삐를 말머리에 걸쳐 놓고 작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가 참되다는 것을 저에게 나타내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진지하게 젊은이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을 동원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끝낸 후에 저는 일어서서 저의 충실한 말의 고삐를 잡고 안장에 올랐습니다. 다시 길을 가면서 혼자 중얼거렸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적인 시험도 주어지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한다면 난 내가 기도하기 전과 “똑같은 아이”일 뿐이야.’”

그는 이 경험을 통하여 젊은 말일성도가 단순히 주님께 간구만을 함으로써 확신을 얻을 수는 없으며, 간구와 더불어 일하고 봉사하며, 희생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커다란 교훈을 배웠다.

돌에 새겨진 메시지

소년 시절에 데이비드는 농장에서 계속 일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유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여 1897년에 졸업을 하였다. 학창 시절에 데이비드는 축구 선수로 활약을 하였으며 또 댄스 악단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했고, 상급반의 학생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졸업이 가까워 오며 따라 그는 장차 가질 직업에 대한 계획을 진작

에 세워 놓았으나, 졸업장을 받기 얼마 전에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으로부터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것처럼 데이비드에게도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기에 심사 숙고한 뒤에 자신의 계획을 뒤로 미루고 부름을 받아들여기로 결정을 내렸다.

예전에 그의 아버지가 봉사하였던 스코틀랜드 선교부에서 처음 몇 달 동안은 오늘날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선교 사업이 그리 쉽지가 않았다. 데이비드는 그 당시 좌절을 겪었던 일과 이를 극복하여 다시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저는 그날따라 집이 그리웠고 조금은 낙심해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여서 학교와 젊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업을 나와 그곳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지니고 있는 편견을 듣고는 낙담하였습니다.

“(동반자와 제가) 다시 읍내로 돌아오는 도중에 저는 오른쪽에서 건축이 채 끝나지 않은 건물을 하나 보았는데 정문 위에는 글귀가 새겨진 돌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돌이었기에 저는 존스톤 장로에게 ‘무엇인지 보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갈 위로 반쯤 걸어갔을 때, 다음과 같이 돌에 새겨진 훌륭한 글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너의 말은 바 일을 다하라.’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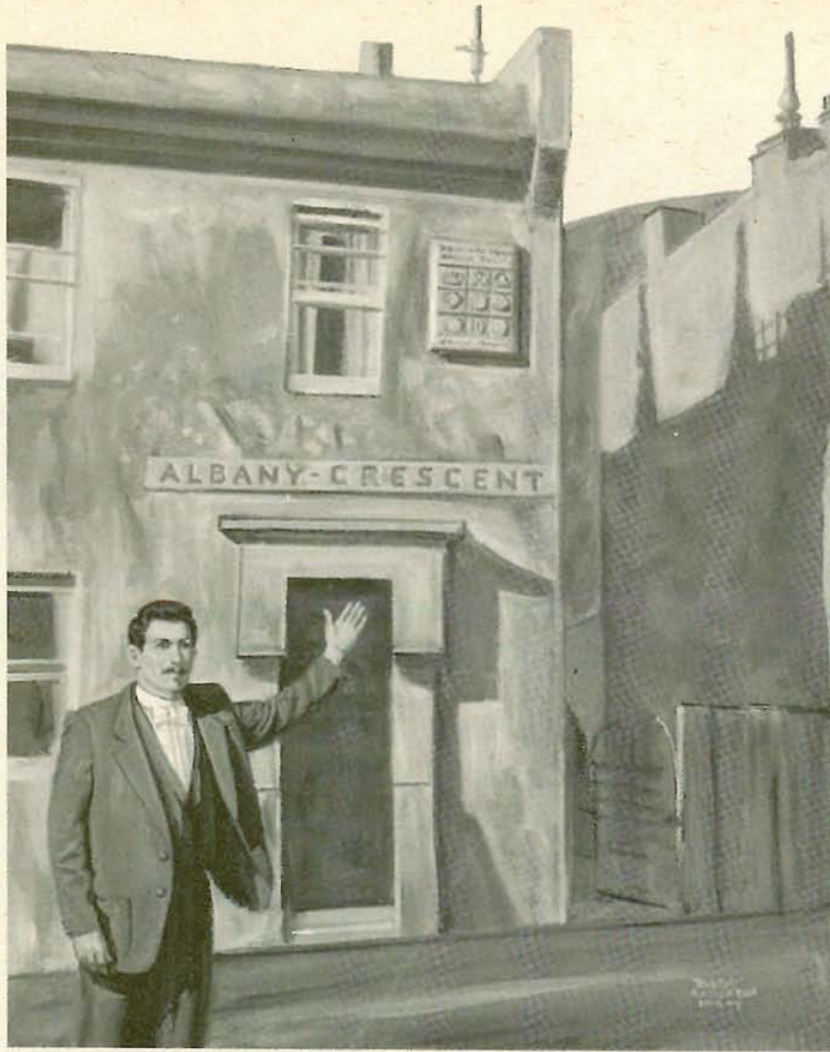
속소를 찾으러 읍내를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그 글귀를 존스톤 장로에게 되풀이하여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아니 제가 지닌 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다.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너는 교회의 대표자가 갖는 책임을 이미 받아들였다...’

“속소를 찾은 그날 오후에 저는 그 돌에 새겨져 있던 메시지를 나의 좌우명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순간부터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서의 저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언이 담긴 축복

데이비드가 열네 살 때에 받은 축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주님이 그대에게 맡기실 일이 있나니, 그대는 세상의 많은 곳을 다니며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며 또한 주님의 사업을 돕게 될 것이니라. 그대의 형제들과 함께 앉아 회의를 열며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한 성도들이 충실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그대의 운명 이니라.”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다. 한 선교사 대회에서 유럽 선교부장단의 보좌였던 제임스 맥머린 부장이 맥케이 장로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데이비드 형제님, 사탄이 형제님을 믿을 체로 치듯이 흔들려 놓고 싶어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을 기억하고 계심



1890년대에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던 스코틀랜드의 길가에서 본 돌에 새겨진 글귀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 돌은 지금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니다. 만일 형제님이 계속 신앙을 지킨다면, 교회를 인도하는 평의회에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로 오래지 않아 이러한 예언은 성취되었다.

선교사 대회에서 맥케이 장로는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자신에게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의 기록을 빌리자면 “의심많은 젊은이였던 자신이 언덕과 초원에서 가장 열렬히 간구했던 바로 그 시현”이었다.

사랑, 존중, 봉사

선교 사업을 끝내고 귀환한 후에 데

이비드는 학창 시절에 사귀던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하였다. 1901년 정월의 어느 추운 아침에 그와 엠마 레이 리스 자매는 주님 앞에서 결혼 성약을 맺기 위해 말 두 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솔트레이크 성전에 도착하였다. 그들 사이에 맺어졌던 사랑과 존중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도 훌륭히 지켜졌기 때문에, 당시 그들이 묵었던 유타 호텔의 방을 60여 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애칭으로 신방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두 사람은 이구 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69년이란 시간은 신혼 기간으로써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

러분들이 영원한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1899년에 그는 옥든에 위치한 교회 소유의 워버 아카데미의 교사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이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한편 교회에서는 스테이크 주일 학교 회장으로 봉사하였으며, 1916년에는 32세라는 이른 나이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과 교회 교육 기구 교육감 및 유럽 선교부장 등 많은 직책에서 정력적으로 봉사하였다. 61세에 그는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보좌로 부름받아 대관장단에서 봉사하다가 이후에 다시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과 함께 대관장단에서 봉사하였다.

그와 엠마 레이가 결혼한 지 50주년이 되던 1951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 서서 모여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었다. 당시 78세인 그는 이 대회에서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 곧 교회의 대관장으로 성도들에 의해 만장 일치로 지지되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총관리 역원 여러분.” 이렇게 말문을 연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였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약점들을 너그러이 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게 하시며 그분의 사업이 발전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교회 회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과 신앙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판이 아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접 만나 도움을 줄 수 없는 분들은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고향에 살고 계시는 분이 보내 온 편지를 읽으면서 교회 회원들이 하는 이러한 기도가 지닌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소꿉을 짜고 있다가 헛간에 켜 놓은 라디오를 통해 스미스 대관장께서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자신의 옛 고향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순간적으로 깨달은 그분은 헛간을 나와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어린 자녀들을 불러 모아 모든 일을 중지하고 그들이 사는 누추한 집에서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10만, 20만, 50만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됨과 기도, 그리고 교회를 지지하는 영향 속에 잠재해 있는 힘을 보도록 합시다.”

진보의 영

맥케이 대관장 시절은, 그분 개인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팔목할만한 성취로 일관된 시기였다. 맥케이 대관장과 그 자매님은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교회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축복을 주었다. 여러 나라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선교 사업의 영역이 넓혀지고, 또한 교회 회원 수가 증가하였다. 커다란 진보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깃들어 있었으며, 말일성도들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으로 발전되었다.

개인에 대한 배려

교회 회원들을 감동시킨 것은 그분이 지닌 만민에 대한 확고한 사랑이었다. 하루는 주일학교 청소년 반원들이 사전에 맥케이 대관장을 방문하기로 약속을 하고 여러 마일을 여행하여 왔으나, 맥케이 대관장은 방금 전에 친형제인 토마스 이 맥케이 형제의 임종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간 뒤였다. 다음 주 안식일에 그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주일학교 공과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교사가 문을 열자, 거기에는 맥케이 대관장이 서 있었다. 그는 반원들을 만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왔다.

그날 자신이 사무실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그는 교사를 포함하여 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는 “교회 대관장이 가능하다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이러한 커다란 배려는 맥케이 대관장이 가르친 위대한 교훈 중의 하나이다. 스위스와 영국에서 성전 부지를 헌납하기 위해 유럽을 여행하는 도중에 맥케이 대관장은 그로부터 사인을 받으려는 영국 청소년들에게 둘러 싸이게 되었다. 첫번째 줄에 있던 아홉 살쯤 된 어린 소녀가 그를 수행하고 있던 그의 아들에게 물었다. “맥케이 대관장님께 사인을 부탁해도 돼요?” 아버지가 너무 피곤하다고 생각한 아들은 그 어린 소녀를 타이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를 듣게 된 맥케이 대관장은 그 소녀

에게 다가가 “우리 꼬마 아가씨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예쁘게 사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라고 웃으며 물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알지 못했던 소녀는 순간 당황하였다. 그때 한 수행원이 말을 가로막아 긴급한 질문을 하여 화제가 몇 분 동안 그쪽으로 쏠렸다. 맥케이 대관장이 다시 그 소녀에게 말을 하려고 돌아섰을 때, 그 소녀는 보이지를 앓았다.

“아버님께서 것처럼 언짢아 하시는 것을 본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아들은 회상하였다. “과란 옷을 입은 그 소녀를 찾아주시겠습니까?”라고 맥케이 대관장은 부탁하였다. “그 소녀는 아마도 제가 자신의 책에 사인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 소녀를 꼭 찾아야 합니다.” 오래지 않아 지부장들과 선교부장들이 과란 옷을 입은 귀여운 소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한 선교사가 그 소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내서 그날 밤에 대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맥케이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부탁했다. “그 소녀의 부탁을 들어 주지 못해 핑장이 미안해 했다고 아이에게 전해 주십시오. 책을 우편으로 솔트레이크로 보내 달라고 지부장님에게 부탁하여 놓았습니다. 반자마자 사인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나중에 맥케이 대관장은 그대로 하였다.

살아 있는 모든 것

한 영혼의 가치! 맥케이 대관장은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존중받고, 또



맥케이 대관장은 주일학교 교실에 있던 모든 어린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는 “교회 대관장이 가능하다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한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하였다. 그는 동물이나 새에 대해서도 이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종종 헌츠빌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말을 타고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한번은 누군가가 농장에 침입하여 대관장이 사용하던 안장들을 훔쳐 갔다. 안장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이것들에 자물쇠 장치를 하여 안장 창고에 보관을 하였는데, 하루는 맥케이 대관장의 여동생들이 농장에 있는 물건들을 점검하기 위해 둘러보고는 연

장 창고의 창문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다시 도둑이 드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창문을 닫았다. 여동생들이 행한 일들을 전해들은 대관장은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창고 안에 새둥지가 있어 내가 일부러 창문을 열어 놓았는데 그 창문이 어미새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날라다 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별일이나 없는지 빨리 가 봐야 겠구나.” 맥케이 대관장은 얼른 가서 창문을 다시 열어 놓고 돌아와서는 상냥하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어린 새 한 마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또 어미새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야단이더구나.”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봉사하는 동안에 맥케이 대관장은 시저라는 이름의 큰 수탉지를 한 마리 길렀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시저가 우리를 부수고 밖으로 나갔다. 열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우리를 수리할 시간이 없었던 맥케이 장로는 시저를 닭장에 넣어 두었다. 그러나 깜박 잊고 자녀들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새벽 두시에 맥케이 가족은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깬다. 나쁜 소식이 아닌 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시저는 닭장에 있음. 물을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전화 전보였다.

“저는 오늘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맥케이 대관장의 인내와 고귀함, 그리고 위엄과 그가 섬긴 구세주에 대한 사랑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구세주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통하여 자신이 되고자 했던 모습은 그가 평화롭게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엿볼 수가 있었다. 유럽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맥케이 대관장을 만난 분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유럽에서 돌아온 맥케이 대관장께서 뉴욕에 계실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보통 사진사가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나이티드 프레스사 측에서는 고심 끝에 뉴욕에서 거친 일에 익숙해져 있던 범죄 경력이 있는 사진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 사진사는 공항으로 가서 두 시간 동안 촬영을 하고 암실로 가서 작업을 한 다음 한참 후에 두툼한 사진 더미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사진사는 두 장만을 찍기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사는 사진을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허비했소?’

실 그 사진사는 두 장만을 찍기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사는 사진을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허비했소?’

“사진사는 추가로 든 비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기꺼이 부담하겠다고 통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허비한 시간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을 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진사가 이 문제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시간 뒤에 부사장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사진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그 사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어머니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 주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지 몹시 궁금해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바로 오늘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선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예언자였다. □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생애

1873~1970

연도	나이	일어난 일
1873년	-	9월 8일 : 유타주 헨츠빌에서 출생.
1877년	4세	브리감 영 대관장 사망.
1897년	24세	유타 대학교 졸업.
1897-99년	24-26세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행함.
1899년	26세	위버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기 시작함.
1901년	27세	엠마 레이 리스 자매와 결혼함.
1906년	32세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음.
1918-34년	45-61세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함.
1919-21년	46-48세	교회 교육 기구 교육감으로 봉사함.
1920-21년	47-48세	세계 각국으로 선교 여행을 함.
1922-24년	49-51세	유럽 선교부장으로 봉사함.
1934-51년	61-78세	대관장단 제2보좌로 봉사함.
1951년	78세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됨.
1955년	82세	스위스 성전 헌납.
1956년	83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리스 성전 헌납.
1958년	85세	뉴질랜드 성전과 뉴질랜드 교회 대학 헌납. 런던 성전과 하와이 교회 대학 헌납.
1961년	88세	교회 협의 프로그램을 도입함.
1964년	91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 헌납.
1970년	96세	1월 18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별세.

참고 서적

1. 제임스 비 알렌, “데이비드 오 맥케이”, 교회 대관장, 레오나드 제이 아링튼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86년.
2. 제임스 비 알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물론 백과 사전, 뉴욕 : 맥밀란 출판사, 1992년.
3. “데이비드 오 맥케이”, 영원히 설 주님의 왕국, 솔트레이크시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80년

기적을 바람

타라 피어슨

때 때로 나는 실제보다 크게 만들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내 생활이 좀더 즐거워 지고, 또한 멋있고 극적인 사건이 내게 일어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상상을 즐겨 한다.

아마도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따뜻한 느낌을 받지 못하거나 시현을 보지 못해 항상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참되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내 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복음이 참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싶었다. 어디선가 “의심할 바 없이 교회는 참된 것이야”라고 내게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면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나는 갑자기 경전을 읽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사이야서를 읽으면서 내 안에서 커다란 행복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베나민 왕의 설교를 듣고 난 백성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과정이 적혀 있었다. “주의 영은 우리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 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모사이야서 5:2)

영이란 바로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오는 사랑의 느낌, 곧 계속해서 옳은 선택을 하도록 해주는 따뜻한 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도 나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때때로 그 응답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

제 시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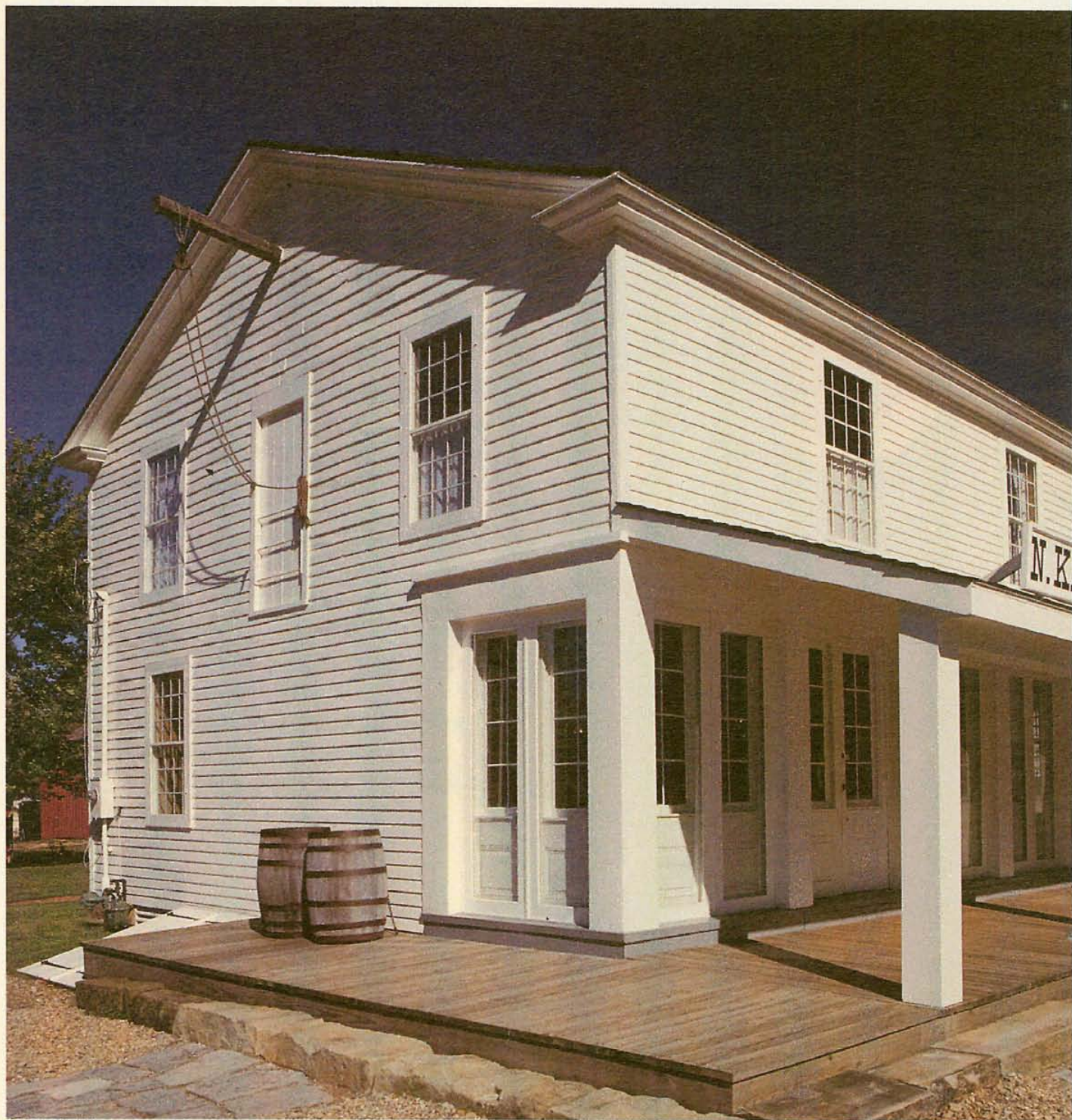


사진 촬영 : 뎀 앤더슨

집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언급된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뉴웰 케이 휘트니 상점은 거룩한 시현이 열린 장소이며 또한 요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에 기록한 열 일곱 편의 계시를 받은 장소이기도 하다.

요셉 스미스, 더그 프라이어 그림



1831년에서 1834년 사이에 교회의 주요한 일들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있는 뉴웰 케이 휘트니 상점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18개월 동안 이 상점은 교회 본부의 역할을 하였으며, 또 대관장단이 왕국의 열쇠를 받은 곳도 이곳이다.(교리와 성약 90:6; 교회 정사 1:334 참조) 그리고 요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이 18개월 동안 이곳에서 살았으며, 이 시기에 예언자는 요셉 스미스역 성경의 번역 작업을 마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교회 초기의 가장 거룩한 몇몇 사건이 1833년 1월 23일에 대회가 열린 이층의 한 방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 처음으로 발췌음의 의식이 주어졌다.(교회 정사

1:323~24, 교리와 성약 88:138~41 참조) 참석자들 중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현을 포함하여 “성령의 성스런 시현”을 경험하였다.

최근 1988년 11월 18일에는 이 건물의 탁월한 복원 상태를 인정하여 워싱턴 디시에서 열린 한 기념식에서 교회 총관리 역원에게 우수 역사 보존 미국 대통령상이 수여되기도 하였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교회 정사에 비 에이치 로버츠 장로는 뉴웰 케이 휘트니 가족 역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발췌하여 교회 정사에 인용하였다.





홍만 그림

“1831년 2월 1일경에 네 사람을 태운 썰매가 커틀랜드 거리를 지나 길버트 휘트니 상점 앞에 멈추었다. 그 중 젊고 건강해 보이는 한 사람이 썰매에서 내리더니 쏜살같이 상점 안으로 들어와 가게 주인이 서 있는 곳으로 왔다. “뉴웰 케이 휘트니 형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하고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고는 마치 오랜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손을 내밀었다. 가게 주인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시는지요.”라고 말하고는 얼떨결에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였다. “저는 예언자 요셉입니다.”라고 낮은 사람은 말했다. “형제님은 여기서 제게 간구한 적이 있지요.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언자는 동부에 있는 동안 예언자가 커틀랜드로 오기를 간구하고 있는 휘트니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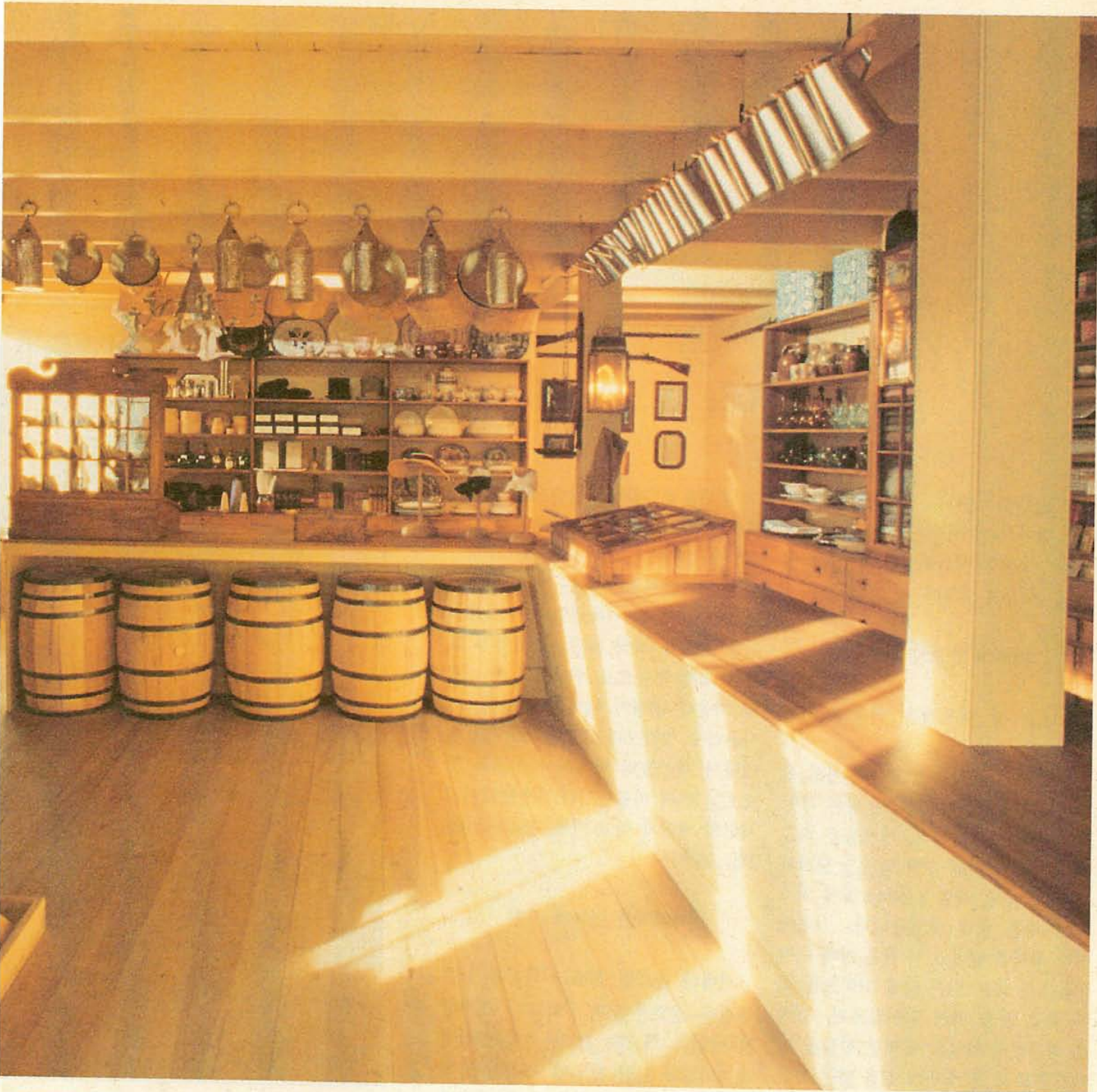
부의 모습을 시현으로 보았던 것이었다. 휘트니 자매(엘리자베스 앤 휘트니)는 또한 어느 날 밤에 있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녀와 남편이 그들이 가장 원하고 있던 성신의 은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동안, 영광이 구름같이 자신들의 집에 내려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 때가 가까왔음이라’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었다.”(교회 정사 1: 146)

· 올슨 하이드의 개종 ·

훗날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 되었던 올슨 하이드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1831년 10월 30일 일요일에 나는 커틀랜드에서 열린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침례를 받았다. 시드니 리그돈 장로가 나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같은 날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 장로에 의해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고 장로에 성임되었다. 삼일 후에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 하늘로부터 특별한 허락을 느낌으로 받았다. 어느 날 저녁 상점의 계산대 뒤에서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게 임하여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혼자서 은밀하게 이 시





위쪽 : 요셉 스미스와 뉴웰 케이 휘트니의 첫번째 만남이 상점의 핵심부인 이 방에서 이루어졌다. 우체국과 유나이티드 펄이라는 합자 회사도 이곳에서 운영이 되었다. 그리고 서기였던 올슨 하이드 형제(훗날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 되었음)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었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맨 왼쪽 : 체커 게임판이 상점의 한 구석에 설치되어 있다. 왼쪽 : 종업원이 사용하던 방.

간을 보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게 있어서 이 시간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될 소중한 시간이었다.”(밀레니얼 스타, 26「1864」: 761)

지혜의 말씀의 필요성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예언자가 계시를 받고 예언자의 학교에서 형제들을 가르쳤던 방은 부엌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학교에 참석하기 위해 수백 마일을 달려와 가로 3.3미터, 세로 4.2미터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내고 이 작은 방에 모여 처음으로 하는 일은 담배 파이프를 입에 물고 불을 켜는 것이었으며, 담배를 피우면서 왕국의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온 방안에 침을 뱉곤 하였습니다. 파이프를 입에서 떼는 순간마다 타다 남은 담배 덩이를 꺼내었습니다. 종종 예언자가 가르치기 위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파묻히는 일이 있곤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렇게 더러워진 마룻바닥을 청소해야 하는 아내의 불평이 계기가 되어 예언자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장로들이 담배를 피우는 일에 대해 주님께 여쭙어 보았고

그 응답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계시를 받았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 158)

지베디 콜트린 형제는 이 이야기에 덧붙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지혜의 말씀「교리와 성약 89편」이 예언자 요셉에 의해 처음으로 주어졌을 때... 21명 가운데 20명이 담배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담배와 파이프를 불속으로 던져 버렸습니다.”(솔트레이크 시티의 예언자 학교 기록, 1883년 10월 3일, 56쪽)

아버지와 아들의 시현

지베디 콜트린 형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들려주었다. “학교가 조직된 후(예언자 학교는 1833년 1월 23일에 조직되었다.) 한 모임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가르침이 끝난 후 요셉과 우리는 손을 위로 들고 조용하게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숨소리 외에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문을 통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았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대일 칼본 그림



교리와 성약 78, 84~98, 101편에 있는 열 일곱 편의 계시를 1832년 3월에서 1833년 12월 사이에 번역실(위쪽)에서 받았다. 또한 이곳에서 예언자는 요셉 스미스역 성경(맨 왼쪽)의 번역 작업을 마쳤다. 왼쪽 : 여러 개의 벽장이 있는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 크기의 부엌. 예언자 요셉의 아내인 엠마는 예언자 학교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1832년 12월에서 1833년 6월 사이에 교회 형제들은 상점 내의 예언자 학교가 열린 방(위쪽)에서 적어도 열 여덟 번의 모임과 대화를 가졌다. 1833년 1월 23일의 방문을 포함하여 그 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본질을 살펴보면 그 방이 성전의 정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 예언자 학교에서 서로 인사하는 한 예니라.”(교리와 성약 88 : 136) 왼쪽 : 계단(왼쪽 아래 구석)과 예언자 학교가 열린 방(오른쪽) 사이에 있는 연단.



의 맏형이신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요셉은 우리에게 전과 같이 기도 자세를 취하라고 말했으며 우리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다른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화염과 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했으며 분명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 예언자 학교의 기록, 1883년 10월 3일, 56~57쪽)

당시에 지베디 콜트린의 선교 동반자였으며 또 그 모임에 참석하였던 존 머독 형제도 이 사건을 경험하였다. “어느 날 이 모임에서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하며 강한 신앙을 나타내 보인다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 정오경에 나의 마음에 시현이 열리고 나의 이해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인간의 형체를 가진 가장 아름다운 한 분을 보았다. 그분의 용모는 건강하고 해같이 빛났다. 그분의 머리칼은 밝은 은회색이었으며, 가장 위엄이 있었으며 곱슬곱슬하였다. 그의 두 눈은 푸르고 꿰뚫어 보는 듯이 예리했다. 그의 목은 백옥같이 희었으며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늘어진 성의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색깔은 눈부시게 희었다. 그 흰색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분의 표정

은 가장 위엄이 있는 반면 가장 사랑스러웠다.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전체를 살살이 훑어보고 있을 때 그분은 나에게서 사라졌고, 시현은 단히고 말았다. 그러나 이 시현은 수 개월 동안 나의 마음속에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강한 사랑을 남겨 주었다.” (존 머독의 일지, 브리검 영 대학교 문서 보관소, 13쪽)

왕국의 열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33년 3월 18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다. “리그돈 장로는 자신과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 형제가 부름받은 직분 즉 대신권의 회장으로로서의 직분에 성임되고 싶으며, 또한 1833년 3월 8일에 주어진 계시에 따라 왕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요셉 스미스 이세와 동등해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 시드니 형제와 프레드릭 형제에게 손을 얹고 나와 함께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소유하도록 성임하였다. 또한 나의 보좌로서 대신권의 회장단에서 돕도록 성임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형제들에게 충실하고 근면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권고하였으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늘의 시현을 볼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



1832년 11월 6일에 요셉 스미스 3세가 이 침실에서 태어났다. 이 아이는 요셉과 엠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홉 명의 아이 중 네번째였으나 살아 남아 어른이 된 첫번째 아이였다. 또한 스미스 부부는 이 당시에 쌍둥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있었으며 이들 중 한 아이는 1832년 3월에 죽었다.

었다. 짧은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고 나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해의 눈이 열려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후에 나는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고 각 사람에게 한 조각씩을 나누어 주었다. 시현이 열려 많은 형제들이 구세주와 무수한 천사들과 그 밖에 많은 것들을 보았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것들을 증거하였다.”(교회 정사, 1: 334~35) □

쓰레기 속에서 찾은 책

크리스티나 안토니오

1984년 10월에 나는 필리핀 바탄주의 오라니에 위치한 한 제지 공장에서 품질 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다른 공장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장에서도 쓰레기로 버려진 종이를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하루는 물론 소개라는 책이 한 무더기의 잡지 속에 섞여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나는 그 책을 내 사무실로 가져 와서는 읽기 시작하였다. 나는 요셉 스미스와 첫번째 시현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소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나는 그 책에서 신권 조직에 관한 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상호부조회에 관한 내용을 즐겨 읽었다. 나는 그 책을 여러 번 읽게 되었다.

여러 달 동안 나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다. 나는 활동적인 천주교 신자였으며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녀가 되기 위해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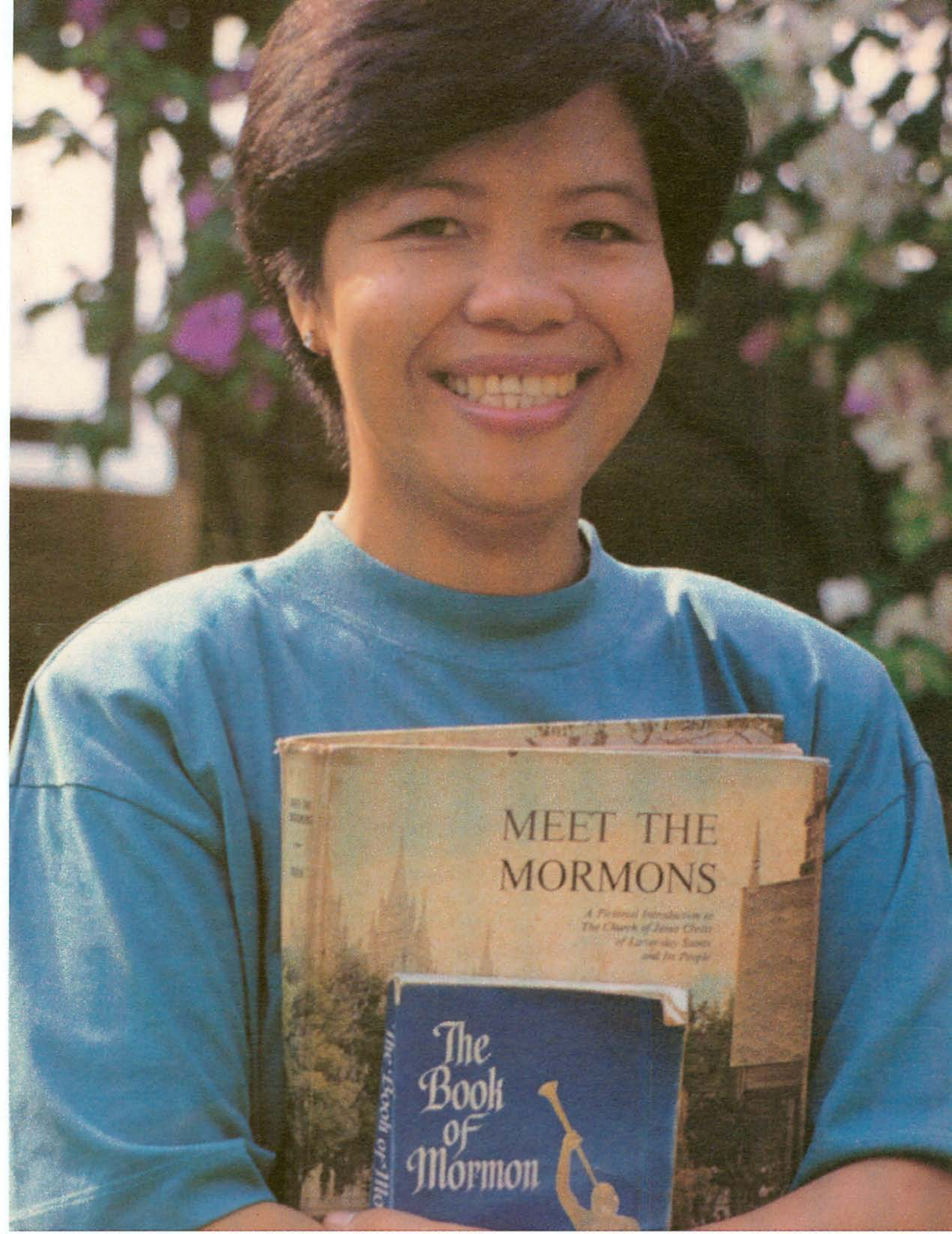
러 모임에 참석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대양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나뭇조각과 같은 느낌이 들 뿐이었다.

2주 후에 나는 한 배달 트럭에 실려 있는 원재료를 검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파란 색 표지를 한 책이 눈에 띄었다. 바로 물론경이었다! 나는 운전사에게 그 책을 가져 가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사무실로 가져 와 읽기 시작하였다. 앞 표지의 안쪽에는 기도의 절차가 적혀 있었다. “어쩌면 내가 이 절차대로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것에 관한 성구가 있는 페이지가 적혀 있었다. 나는 열심히 그 부분들을 찾아 보았다.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있었다. ‘혹시 신약전서에서 빼껴 쓴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다. 나는 미대륙에

나타나셨던 그리스도와 유대인을 가르치셨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확실히 그분께서는 같은 가르침을 주셨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또한 필리핀에도 오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니파이일서를 펼쳤다. 리하이와 니파이 그리고 레이맨은 또 누구지? 모두 이상한 이름뿐이었다. 나는 그 두 책을 소중하게 간직하였다.

그 해 11월 하순에 친구 하나가 나에게 카렌 거디스라는 미국에서 온 말일 성도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사람은 필리핀에서 평화 봉사단 자원 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카렌은 해일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판타란 루마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카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점이 있었다. 단지 눈빛이 파랗다는 것만은 아니었다. 미소 짓는 모습과 얼굴 빛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나는 카렌에게서 성실성을



MEET THE
MORMONS

*A Friendly Introduction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nd Its People*

The
Book
of
Mormon



느낄 수 있었다. 행복과 사랑이 카렌에게서 뿜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카렌이 왜 편안한 자기 집을 떠나 가난에 찌들은 이 덥고 습한 나라에 와서 살며 낯선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그것도 보수도 받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어떤 이유로 카렌은 이 나라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 모든 물문이 카렌과 같을까?

카렌을 만나고 나서 몇달 후, 나는 그녀에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국민을 도와 주니 부끄럽습니다.”라고 하며 내가 도와 줄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우정은 시작되었다. 나는 카렌에게 종교에 대해 묻곤 하였다. 나는 카렌도 한때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카렌은 나를 억지로 믿게 하려 하지 않고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교회 소책자를 주었다.

1985년 3월에 카렌은 나를 노변의 밤 모임에 초대하였다. 그 모임에서 나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포스터를 눈여겨 보았다. 그것은 나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나는 이와 관련된 여러 성구를 외워 두었다. 자매 선교사들이 나에게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더라는 필립스트림을 보여 주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은 하늘의 문이라는 비디오를 보여 주었다. 그때서야 나는 십일조가 십분의 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십일조를 내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나는 그 이후로 십일조에 대한 나의 관점을 이렇게 설명하곤 했다. “십일조는 우리가 낚시하러 갈 때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십일조라는 미끼를 사용하여 축복이라는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비유를 들려 주기도 했다. “우리가 고구마의 땅 위로 나온 부분을 잘라 버린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고구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구도자”라고 불리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으며 또 강요당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냐고 회원들이 물었을 때, 나는 싫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자매 선교사들을 다음 토요일에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다. 선교사들은 집으로 와서 나에게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난민촌을 찍은 슬라이드를 보여 주었을 뿐, 종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나에게 여러 소책자를 주었고 나는 그것들을 읽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주, 나는 마닐라에 사시는 어머니 집으로 가서 내 질문에 대답을 줄 만한 신부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오빠와 언니가 참석하고 있는 성경 연구회에 가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 말씀에 따라 그곳에 가서 내가 질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놀랍게도 모임을 주관하는 신부님께서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셨다. 나는 지체할 것도 없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언급된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신부님은 큰 소리로 그 구절을 읽고는 시계를 보시더니 모임을 끝내시면서 “제 사무실에 가서 얘기 좀 할까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어로 된 성경과 다른 책들을 가져다가 부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두 시간 동안이나 토론을 하였지만 나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신부님은 내게 두 권의 책을 빌려 주면서 읽어 보라고 했다.

다음날 나는 나이 드신 신부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다. 그분은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4월 1일 일시적으로 종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구원의 계획이라는 소책자를 읽고 있었을 때, 내가 읽은 것들이 참되다는 확신을 느끼게 되었다. 성신이 그 모든 것을 명확히 나에게 증거하고 있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으며,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주 귀중한 것을 찾았던 것이었다.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나를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자 카렌이 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구원의 계획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침례받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카렌은 복음을 가르칠 선교사를 소개해 주었다.

다음날 나는 존슨 장로와 바랑간 장로와 첫번째 토론을 하였다. 나는 침



1985년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서의 카렌 거디스 (좌측)와 크리스티나 안토니오. 개종자인 카렌 지매는 크리스티나 지매가 진리를 찾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례를 받아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선교사 숙소로 갔다. 내가 장로들에게 그 느낌을 이야기하자 존슨 장로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하며 교회에 참석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저는 이미 지혜의 말씀 필름스트립을 본 다음부터 그 계명을 지키고 있고, 교회에도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라고 나는 말했다. 장로들은 내게 세 개의 토론을 더 가르쳤다. 부활절 주일인 1985년 4월 7일 나는 침례를 받았다.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무인가를 이처럼 기다렸던 적이 없었다.

그날은 마침 금식 주일이기도 했다. 나는 금식을 하고 성찬식에서 간증을 했으며, 처음으로 십일조를 내었다. 간증을 나누고 나서 나는 나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나는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나뭇조각이 아니었다. 나는 완전히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성신이 나에게 증거하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침례를 받은 다음,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서 의식 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나는 복음을 알게 되어 인생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나는 내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은 몰몬경이 도리어 나를 구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십시오.

조지 아이 캐넌

전 칠십인 정원희 회원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끼고 싶으십니까? 여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부장으로 있었을 때, 저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는 장로나 자매를 접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에게 선교 사업의 결과로써 무엇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옷가방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장로는 “저는 저 자신을 좋아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는 여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친구가 부러워서 그 친구가 되고 싶었고, 또 빨간 경기용 자동차를 가진 친구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땐 제가 그 친구였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또 미식축구팀의 쿼터백이 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선교부에 도착했었을 때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부장 보조가 되거나 항상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경전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는 장로가 되길 원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멋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랬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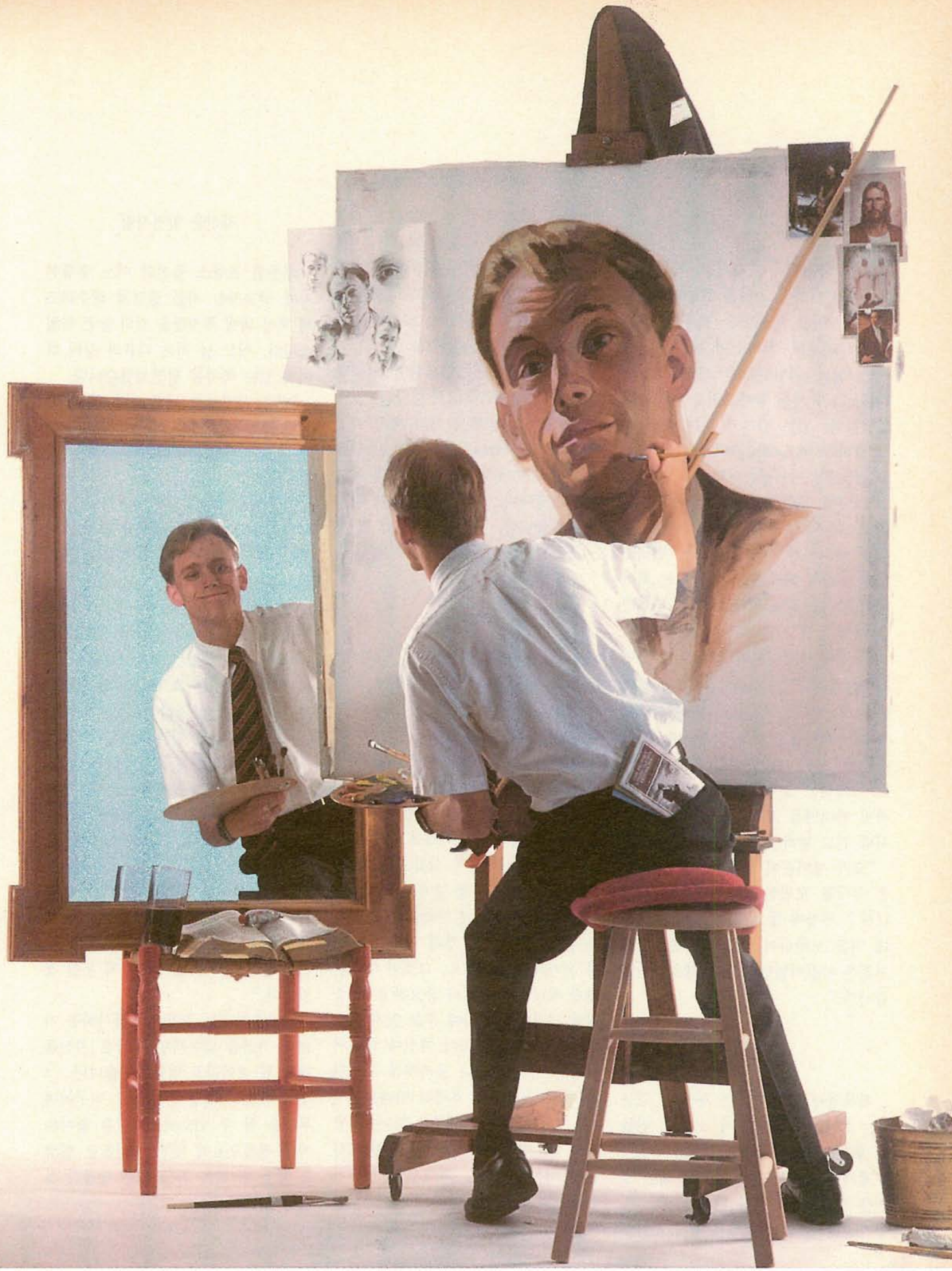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2년 동안 봉사하면서 저는 제가 진정 누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구세주와도,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더 큰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개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젠 더 이상 제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귀환합니다.”

저 역시 이 장로와 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존중하게 되고 그것을 그의 인생 철학 가운데 하나로 삼게 되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수 년에 걸쳐 이 젊은이가 그 자신과 그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얼마나 발전하고 성숙해졌는지 지켜 보는 일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모든 은사가 다 저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니, 많은 은사가 있음이라.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써 한 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느니라. 어떤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또 다른 이에게는 저러한 것을 주사 모든 자가 이로써 유익을 얻게 하시느니라.” (교리와 성약 46:11~12)



자신을 가지십시오.

줄즈 하이버는 “자신을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줄곧 있는 그대로의 저 자신이 싫었습니다. 저는 빌리 워덜런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를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빌리가 걷는 대로 걷고 말하는 대로 말했으며 그가 지원한 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빌리의 행동이 바뀌며 허비 밴더맨의 주위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리는 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허비 밴더맨처럼 걷고 말하는 빌리 워덜런을 따라서 걷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비 밴더맨이 조이 해벌린처럼 걷고 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그리고 조이 해벌린은 코키 새비슨처럼 걷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코키 새비슨처럼 걷고 말하려고 노력하는 조이 해벌린을 흉내내는 허비 밴더맨을 모방하는 빌리 워덜런처럼 걷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키 새비슨이 늘 걷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모방하여 걷고 말하는, 약간 귀찮은 사람이었던 도페이 웰링턴이었습니다.”

형제들.

저에게는 스텐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스텐은 무엇이든지 고치고 만들 수 있는 공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직업 선택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적성 검사를 받는데, 검사관은 저에게 “학생은 공과 분야로

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저는 그 방면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 하수도를 고치려고 시도할 때마다 제가 망쳐 놓은 것을 고치기 위해 배관공을 불러야만 합니다.

저는 제 동생을 인정하며 사랑합니다만 동생을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생이 가진 많은 재능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우리 집 주변에서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휘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별이 독수리가 될 수는 없지만 꿀은 만들어 낼 수 있다.”

엄지 손가락.

자기를 좋아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할 때, 각자 엄지 손가락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지 손가락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에게 그들이 그 엄지 손가락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고 또 살아갈 수십 억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것과 꼭 같은 엄지 손가락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엄지 손가락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대한 사람인가를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있거나 초라하게 느낀다면 엄지 손가락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나는 특별하다. 내 엄지 손가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

개종한 프랑스 출신의 어느 훌륭한 자매 선교사는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제 책상 위에 쪽지들을 갖다 놓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는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은 결코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귀함이란 이전의 자신보다 더 발전해 있는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가진 마지막 연차 대회에서 교회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영원하며 육신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그 어떤 것이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청남 청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바로 진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196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생활의 일부를 할애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자신을 잃는다면 결국은 자신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실로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좋아하기를 배움으로써 멋진 기억들로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신 주님, 데오도르 고르카 그림

제어자 오세 스미스의 우리비 리우디는 리투게드 신자에서



1992년이 저물고 새해가 시작될 즈음에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합창단은 꼭 찬 공연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기독교 성지를 돌며 부활절
 텔레비전 특별 프로를 위한 촬영도 했다. 그 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동산 무덤(위)도 있다. “한 음성”, 10쪽 참조